

월간 가든인 9월호

September 2015

Gardenin

특집
기사

특집 / 달콤한 상상, 초콜릿정원으로 초대

GARDENIN LIFE
9
VOL. 29

Gardenin Maintenance

가을 정원 무엇으로 꾸밀까요?

9월의 정원관리



Gardenin Plants

관목시대 / 정원의 필수선택 붓들레아

부들 / 이명호



Gardenin Culture

정원의 색채 - 가을

꽃을 탐하다 '블루보넷'

동화 같은 정원 '더 그림'



Gardenin Design

정원계획과 디자인편

노트레스 오픈정원

중세의 정원



Gardenin Information

이달의 추천도서 / 심안에 꽃을 물었다 힐링원에



Fuchsia 'White Gold'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잔디 잡초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syngenta

TM

- 다양한 잡초에 적용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입니다.
- 락 등 난방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합니다.
- 잡초 발생 초기 뿐만 아니라 발생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약효가 탁월하며, 약효 지속기간이 길습니다.
- 잔디(한국잔디)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주요대상작물 : 한국잔디

무로상담전화 080-900-1114 | 상담전화 1588-3889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 시흥전에 본가제제를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본가제제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정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가 손에 넣는 곳에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 잔디(잔디)에 사용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십시오.

Gardenin

Gardenin 월간 9월호

CONTENTS

Gardenin Maintenance

일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계절별 정원의 준비 및 점검 사항을 알려주는 코너로 정원관리의 중요성과 정보공유가 필수사항.

4 가을 정원 무엇으로 꾸밀까요?

6 9월의 정원관리

10 원예와 사람 그리고 정원이 만나는 마을정원 / 김시용

Gardenin Plants

식물을 알고 정원의 식재를 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는 문제도 해결되며, 식물과 식물의 혼합과 유대관계를 알려주며 정원 속 식물의 비밀을 알아보는 코너

16 정원 속 보이네 / 박공영

20 특집/ 달콤한 상상, 초콜릿정원으로 초대 / 서준혁

26 정원다이어리 / 양귀비

30 관록시대 / 정원의 필수선택 붓테레아

32 서늘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36 정원다이어리 / 양귀비

Gardenin Culture

정원은 나무와 꽃만 심고 외면하는 시대는 지났다. 레스토랑과 카페도 정원이 없는 곳은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다. 정원과 융합된 정원 문화가 우리 삶 속에 하나씩 들어오고 있다. 어떠한 대처를 하며 준비해야 하는가를 각각의 각원에서 풀어간다

40 정원의 색채 - 가을 / 오도

44 우리들의 꿈은 정원경영 / 손관화

48 꽃을 탐하다 '블루보넷' / 김세경

52 벤쿠버 아일랜드 트렉킹 / 정수진

55 식물원, 수목원을 만나다 / 김홍렬

60 동화 같은 정원 '더 그림' / 우정아

Gardenin Design

정원은 내가 원하는 꽃을 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계획한 정원의 모습은 시간이 흐른 뒤 원하는 모습과 아름다움보다는 꽃의 집합소 같은 느낌. 정원다이어리는 왜 필요하고, 전문가는 무엇을 알려주려는 마음인가? 그리고 오랜 정원의 장점을 보며 식재와 외관 디자인과 강조와 싶은 곳과 문제점을 풀어가며 안목을 높여서 나와 정원에 도움을 ...

64 정원계획과 디자인편 / 박영미

68 노트레스 오픈정원 / 활동진

74 중세의 정원 / 서수현

79 DIY 정원 / 우정아

81 도서소개 / 집안에 숲을 틀이다. 힐링원예

가을정원 무엇으로 꾸밀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정원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국화만 떠올리는 시대는 지났다. 겨울이 오기 전 정원의 아름다움을 심으려는 독자들에게 늦가을까지도 꽃의 호화로운 색상을 마음껏 누리며 형형색색으로 알맞은 장소를 찾아 심으면, 정원에서 작은 공주를 만난듯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품종을 소개한다. 우리꽃연구소 유전자원에 사진 렌즈를 맞추며, 이제 정원은 사계절 느끼도록 정원사의 머리로 심는 시대가 우리에게도 왔고, 정원에 맞춤형 식물을 찾아 심을 수 있다.



정원의 아름다움



장기개화 식물인 코레우리 *Coreopsis* 시리즈를 발견하며 정원에서는 가을에도 아름다움을 연출하느라 정원이 노래한다. 자라면 윗부분을 전정하면 2주후 계속 장기개화하며 성장하는 5월 ~ 11월말, 색상 5색, 품종 12종 (일년, 다년생)

코레우리 유전자원 육묘장에서 ...



9월의 정원관리

늦여름에서 가을로의 변화

9월은 8월보다 추워지고 해가 짧아지며, 꽃으로 이루어진 정원에서는 일년 중 다른 달에 비해 비교적 할 일이 적으나, 과일이나 채소밭으로 정원을 꾸렸으면, 수확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시기에는 또한 내년 봄에 꽃이 피는 구근을 심거나 내년 여름을 장식할 종자를 수확 할 수 있고, 최대한의 정원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꽃

씨뿌리기와 심기 / 추식종자 파종하기

내년 개화하는 스위트피 종자를 옥모실이나 온실에서 심어서 키우고, 참제비고깔(*Consolida*), 금잔화(*Calendula*), 수레국화(*Centaurea*), 양귀비(*poppies*) 등 내한성 1년생 식물은 외부에서 씨를 뿌려준다. 제비꽃(*Viola*), 디기탈리스(*Digitalis*), 꽃무(*wallflowers*) 등 봄에 꽃을 피우는 2년생 식물들 이른 여름에 씨를 뿌려 길러졌으면 바깥에 옮겨 심어 주어야 한다. 지금부터 9월 말까지 새로운 다년생 식물들 심기에 좋은 시기이며, 온도 유지와 습기 유지를 잘 해주어야 한다.



종자수집

꽃씨

가지치기와 뿌리나누기

벽걸이 화분의 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되며, 가을 중순까지 끝을 잘라주거나 물과 비료를 계속 주어야 한다. 벽걸이 화분의 식물이 최상의 시기가 지나면 겨울이나 봄용 식물로 갈아 주며, 봄에 피는 구근이나 담쟁이덩굴 같이 봄에 만개할 수 있는 식물들 사용한다. 달리아(*Dahlia*), 참제비고깔(*Delphinium*), 펜스테몬(*Penstemon*) 등의 시들은 끝 순을 따주어서 좋

정원사의 정원관리 업무리스트

No.	리스트	여름		
		9	10	11
01	관목 & 덩굴정리			
02	가지치기 / 전정작업			
03	퇴비주기			
04	춘·추근 구근 심고 나누기			
05	화단 관리			
06	원에 업무			
07	정원도구 수리·유지·보수			
08	잔디 관리(깎기)			
09	온실 비닐하우스 관리			
12	추수하기			
13	조경 경관 디자인			
14	춘식 추식 씨앗 파종			
15	동절기 정원 관리 준비			
16	풀 베기(잡초제거)			
17	병충해 관리			
18	식물영양 토양 작업			
19	식재 선정 작업			
20	식재 심기 작업(춘식추식)			
21	토양 분석 및 관리			
22	관수 관리			
23	종관 관리 감독(정원관리피드백)			
24	작업전 후 사전정리			
25	파종시기 리스트 작업			
26	월동준비			

뿌리포개어심기



은 상태와 색상을 유지시킨다. 약해지거나 시들어가는 다년생의 그루다듬기를 하며, 이 시기에 옷자라거나 시들해져 보이는 고산식물이나 다년생 초본의 뿌리나누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는 내년엔 활력을 높일 수 있고, 꽃과 전반적인 모양새를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종식



삼수준비

일반관리

바늘꽃(*Fuchsia*), 아프리카칸데이지(*Gazania*), 란타나(*Lantana*), 어저귀(*Abutilon*) 등 약한 다년생 식물들 실내로 이동 시키고, 달리아와 칸나(*cannas*) 등은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덩이줄기 또는 뿌리줄기를 뽑아 준다. 따뜻한 남쪽지방에서는 땅속에 나누어도 괜찮을 것이며, 짚 등을 덮어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키가 크고 늦게 꽃이 피는 꽃망초(*asters*)류는 지지대에 묶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막고, 대부분의 다년생 잡초는 제초제에 쉽게 죽기 때문에 이른 가을에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함유된 제품을 뿌리와 줄기 상단에 골고루 뿌려주어야 한다. 소중하게 가꾸는 식물은 비닐을 사용하여 꼭 보호해 주어야 한다.

미리 준비하기

봄에 피는 지피식물 구매하고 봄에 피는 구근을 주문 또는 구매한다.



crocus bulbs

꽃꽂 뿌리나누기



꽃이 피고 난후 정원의 식재 부분을 정리하여 아이리스의 덩어리가 너무 자란 것은 포기 전체를 파내어 나누어 주기를 해야한다.



심은 뿌리의 나누기는 원하는 크기대로 나누어 자른다



자른 뿌리는 줄기 부분의 윗 부분을 자른후 심어주면 뿌리의 성장을 도와 봄에 포기의 크기도 커지고 꽃도 볼수 있다.

교목과 관목



해충과 질병

국화(chrysanthemums) 식물에게 흰녹병의 증상이 있는지 관찰을 하고, 망가진 플록스(Phlox)가 발견되면 선충의 피해를 의심해야 한다. 국화, 아네모네(Anemone), 펜스테몬 등의 초본 식물의 잎이 변색이 되면 잎이나 줄기에 사는 선충의 피해를 의심해야 한다. 흰가루병도 따뜻하고 건조한 9월에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한다. 방패벌레과(Tingidae)는 노린재목(Hemiptera) 노린재아목(Heteroptera), 빈대하목(Cinicomorpha)에 속하며 과거에는 군배충과(軍配虫科)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방패벌레과로 변경되었다 이들은 주둥이를 식물에 찔러 즙을 빨아먹음으로써 잎에 병변을 초래하는데 국화와 재배식물과 국화와 잡초에 기생하며 포장 주변의 양미역취



공벌레

참고자료: 실내화초에 생기는 벌레 처리(<http://m.blog.daum.net/kgb7007/181#>)



방패벌레



방패벌레

나 돼지풀 등이 있으면 발생하여 인근 포장으로 침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충이나 유충이 잎을 빨면 그 자리에 회끄무레 한 반점이 생기며 잎이 백화하여 고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화방패벌레는 표고 100m~1000m 사이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가지, 국화, 고구마, 해바라기 등의 작물에 해를 입히나 국화와 작물에 대한 피해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는 국화와 쑥부쟁이류에 기생한다고 한다.



유단동자를 갉아먹는 공벌레



심기와 옮겨심기

가을 중간의 날씨가 되면 새로 심거나 옮겨 심은 교목과 관목이 잘 정착하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지금 관목을 심으면 겨울 내내 정착을 하고 내년에는 순조롭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가지치기와 적응시키기

늦여름에 꽃이 피는 관목의 가지치기를 하며, 상록성 화양목은 마지막 다듬기를 하여 겨울 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죽거나 병들어 가늘고 약하게 자란 부분은 잘라주고 새로운 가지나 나오면 밑부분부터 지지대에 고정해 주고, 두껍고 나무 줄기 같으며 새 순이 나오지 않는 가지의 밑단을 잘라 제거하면 보다 활발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수경정원



녹조가 없는 깨끗한 수경정원을 원한다면 다슬기를 키워보면 이유를 알게 된다. 미나리등 여러가지 이유를 찾았지만 녹조이끼를 없애는 것은 다슬기이다.

잔디

일반관리

특히 새로 심어서 건조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이나 관목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토양에 충분한 물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치워주어야 하며, 방치하여 썩으면 후에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낙엽은 유용한 퇴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게 부수어서 모아 두었다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해충과 질병검사

정원의 위생이 좋으면 질병을 막을 수 있고 잎의 감염이 안 생기게 하거나 막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감염된 잎을 사용하여 퇴비를 만들거나 땅에 떨어져 방치되게 하면 안 된다. 뽕나무버섯은 이 시기에 발생을 하며 입목에 피해를 줄 수 있으나, 무해한 많은 버

섯 종류가 있으므로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건조한 기간이 오래 되면, 흰가루병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잔디의 성장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잔디깎기 작업은 덜 자주하고 잔디기계 칼날의 높이를 높여주며, 잔디의 길이가 길면 온도와 습도의 적응력이 높아 진다.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잔디를 단단히 다져주고 칼륨(potassium)이 많이 함유된 비료를 사용 해 주며, 여름에 사용하는 질소(nitrogen) 성분이 많은 비료를 사용하면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다.

문제해결

여름에 망가진 잔디를 덧대거나 씨를 뿌려서 보수한다. 올해의 마지막으로 잔디에 제초제를 사용 다년생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 노랗게 부분탈색이 되는 것은 비가 오거나 온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으며, 가을 잔디의 문제는 대부분 버섯이나 이끼 또는 잡초로부터 발생된다. 이런 문제점은 배수나 가뭄 또는 너무 뻥뻥하게 자라서 생기는 현상 들이다.

syngenta. 신원다 코리아(주)

모뉴먼트

다양한 잡초에 적용 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이다.

· 띠 등 문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한다

· 잡초 발생후 뿐만아니라 발아 전 사용시 예방 효과가 우수한 제품이다. (묘생등지)

·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약효를 발휘한다.

· 약효 지속시간이 길어서 오랜 기간 지속력이 있다.

· 한국잔디에 사용해도 잔디에 피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방제 효과가 뛰어난 사진비교

‘발아 예방효과가 우수하고 적은 소량으로도 우수한 효과와 긴 약효시간을 유지하여 추척이 되는 가을까지는 잡초와의 전쟁에서 해방되는 소식을 드릴 수 있다.

마을정원 (Community Garden) 연재1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꽃이 만발하기 시작한 정원입구 전경.

원예와 사람 그리고 정원이 만나는 마을정원 (원예조합 가꿈)



원예조합 '가꿈'과 지역 단체에서 키운 꽃과 채소모종을 지역주민들에게 연중 판매한다

꽃과 나무를 가꾼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따온 원예조합 '가꿈'은 협동조합의 기본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며 집 정원과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희망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단체를 운영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 2003년 풀무학교 생태농업전공부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시작한 생활원예 수업이 지역으로 나와 협동조합의 형태로 모임을 만들고, 2008년부터 지금의 원예조합 '가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가꿈에서는 꽃씨를 뿌려 모종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개인집 정원 설계와 만들기를 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과 생태교육 및 식물상 조사를 통한 식물물을 알고 어디에 심을수 있는지 등의 수업을 통해, 우리지역의 식물계를 알아보기도 한다. 봄·가을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원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해, 집 정원을 가꾸는데 필요한 원예기술을 교육으로 풀어낸다. 꽃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화단에 설계해서 심고, 가을이면 씨앗을 받는 방법에서부터, 정원수를 전정하기 위해 필요한, 전정하는 시기와 전정방법을 배우며, 전정가위와 톱의 사용법등 정원의 관리요령을 익히기도 한다. 또한 정원에 나는 풀의 종류를 알아보고 깨끗하게 뽑는 방법과 더 이상 정원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배우기도 한다.

정원일은 어느 특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술이 아니라, 채소를 가꾸듯 약간의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원예조합 가꿈에서는 누구나가 정원사가 되어, 마을을 가꾸고, 그 아름다움을 같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원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다. 아이들은 꽃밭에서 뛰어 놀고, 어른들은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정원에 피어있는 꽃과 나무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 더욱 멋진 정원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한마월에 정원사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정원의 손길을 다 같이 나누며 행복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원문화를 남겨 줄 수 있는 마을이 되길 희망한다.



사무실 옆 큰 화분에 식물(백면두, 까치콩, Lablab purpureus 'Alba')을 심어, 여름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만든 그라데이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물 교육을 진행하며 나무를 관찰하고 있는 모습

원예조합 '가꿈'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2015년 가꿈의 주요활동은 마을의 교육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마을사람들과 지역외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식물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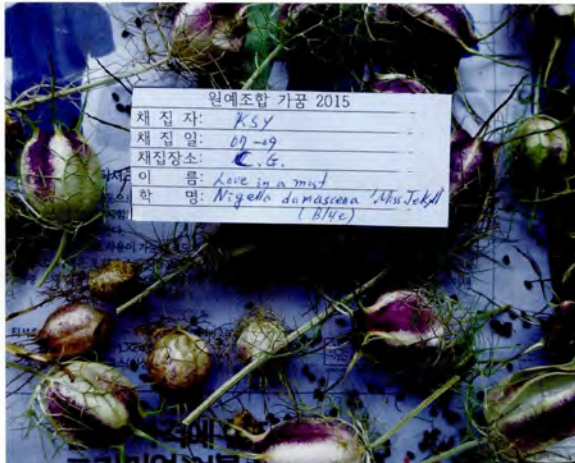
여름과 가을이 되면 정원에 피어있던 꽃 씨앗들을 받는다. 씨앗 받는 요령도 교육을 통해 물어 나간다.

마을의 교육기관은 풀무생태농업전공과정의 원예수업, 풀무고등학교의 전문교과과정, 흥동중학교의 생태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단체는 논매미와 정기적으로 식물공부를 하고 있다. 또한 부정기적으로 식물이름을 물어오는 마을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려주기도 한다. 물론 단골(?)고객이 있어 식물을 관찰하고 끊임없는 배움에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지역 외의 교육활동은 텃밭농사를 짓는 대상으로 텃밭 정원 디자인하기, 식물관찰일지, 자생식물의 분류 등이다.

풀무생태농업전공과정의 원예수업에서는 학교정원과 마을의 개인집 정원을 관리하며, 식물 생태적 특성, 외형적인 특성을 관찰하고 어떻게 식물 관리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수업은 앎을 먼저하고 행함을 나중에 하는(知行合一)의 과정이기 보다는 실습하고 그 실습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고 이유에 대해서 공부 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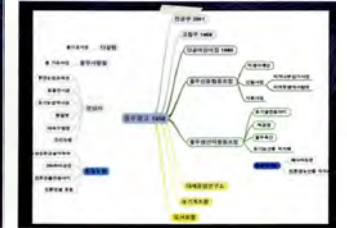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나팔과 씨앗 주머니. 그 안에는 까만 씨앗들이 들어 있다. 씨앗을 채종한 날짜와 채집한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 해둔다.



흥동중학교에서는 식물 분류체계를 학교에 있는 실제 식물을 통해 배우고 꽃누르미를 하는 과정에서 식물에 대한 관찰과 꽃누르미 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감성을 키우고, EM활성액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주변환경에 관심을 갖고 좀더 좋은 환경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풀무농업고등학교에서는 식물에 대한 이해와 지역의 산과 정원을 탐방하며 식물관찰을 하고 식물이름 알기와 자연관찰을 통해 '정원만들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수업의 특성을 식물관찰하는 연습을 통해 관찰력을 기르고 이를 확대해서 숲을 보는 눈을 기르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외의 강에서는 도시농업전문가 과정과 텃밭지도사 과정의 사람들에게 텃밭정원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 식물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식물분류체계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등을 다루고 있다.





가을에 심는 봄꽃 (추식구근) 튤립, 수선, 무스카리 알리움, 크로커스, 아네모네 등

- ◆ 아름다운 추식구근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 ◆ 기존의 야생화 화단, 꽃잔디 화단, 잔디밭 등 어디든지 식재가 가능한 전천후입니다.
- ◆ 우리꽃은 다양한 추식구근을 공급합니다.

품목	단가/(원)	식재수/m ²	비고
튤립(일반)	320~350	30~50	
튤립(스페셜)	500~600	30~50	
수선화	600	30~50	
크로커스	400	80~100	
알리움기간티움	3,000	9~16	
무스카리(보라)	300	80~100	
무스카리(하양)	500	80~100	
무스카리(분홍)	800	80~100	1,000개 한정판매
무스카리(노랑)	800	40~50	1,000개 한정판매
하아신소이데스	500	80~100	
아네모네블란다	500	80~100	

디자인 및 식재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회사인 우리꽃에게 문의하십시오.
미리 준비해야 우량의 구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우리꽃영농조합법인
URISEED COMPANY

T. 031-634-7990 F. 031-634-7991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식물과 정원문화의 4계, 그리고 여행

찾아가는 정원 아카데미

2015년 가을 우리꽃과 가든인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론도 실습도 아쉽습니다.
매번 현장 실전 프로그램!

등교 준비물은 반드시 작업복과 작업화 그리고 손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받는 동료의 정원이 교육장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일정안내

주최	우리꽃, 이천그린포럼
수강료	추후공지 (중식, 실습비, 교재비 포함) *재료비 별도
장소	우리꽃: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인원	30명 선착순 마감
일정	추후공지 매주 ○요일, 10주강의 / 4시간 수업
문의	전화 031-634-7990 이메일 jwgo@uriseed.com



찾아가는 정원 아카데미 커리큘럼

강의순서	정원문화들이 일정	정원들이 내용	비고
정원놀이 1강	식물의 채종, 파종, 육묘관리	공통:금주의 정원관리 정원식물의 채종, 파종, 육묘 관리	우리꽃 정원및 실제 현장
정원놀이 2강	삼목, 정원식물의 번식 및 정원관리	공통:금주의 정원관리 정원식물의 번식	우리꽃 정원및 실제 현장
정원놀이 3강	정원계획 및 혼합/혼성 식재	공통:금주의 정원관리 식물의 식재방법과 혼합/혼성 식재	우리꽃 정원및 실제 현장
정원놀이 4강	아리가든, 암석가든	공통:금주의 정원관리 암석가든과 아리가든 조성	우리꽃 정원및 실제 현장
정원놀이 5강	수생정원, 연못조성	공통:금주의 정원관리 연못정원조성과 관리	우리꽃 정원및 실제 현장
정원놀이 6강	잔디정원 조성 및 관리	공통:금주의 정원관리 잔디정원 조성 및 관리	우리꽃 정원및 실제 현장
정원놀이 7강	옥상, 벽면 등 인공지반 녹화	공통:금주의 정원관리 옥상 녹화, 벽면녹화 등 인공지반 녹화	우리꽃 정원및 실제 현장
정원놀이 8강	여름/절동 관리 및 울타리 다듬기	공통:금주의 정원관리 식물의 여름관리, 절동관리, 관목의 정리, 전정 다듬기	우리꽃 정원및 실제 현장
정원놀이 9강	국내 정원여행	국내 여행 정원 기행	2박 3일 남해, 또는 제주도 여행 추가 비용 발생
정원놀이 10강	해외 정원여행	해외로 떠나는 정원 문화여행	호주, 뉴질랜드 또는 유럽여행 10박 이상 추가비용 발생



우리꽃연구소
URISEED INSTITUTE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T.031-634-7990 F.031-634-7991



Delosperma

비단세덤(송엽국, Genus Delosperma)

비단세덤은 상록성, 반상록성으로, 보통 세덤과 같은 다육, 다즙의 잎 조직을 가지고 주로 매트를 형성한다. 다육성의 다년생 식물 및 일년생 식물로 150종 이상의 속으로 중앙아프리카, 동부 그리고 남 아프리카의 연역이 많은 지형에서 발견된다. 삼각형에서 원통형 모양의 다육성 잎은 마 주보는 쌍으로 나며, 데이지처럼 생긴 꽃은 단생하거나 넓은 취산꽃차례로 여름에 핀다. 참고로 취산꽃차례(취산화서)란 꽃이 피는 개수가 한정되는 유한 꽃차례로 가지 끝에서부터 꽃을 피우는 식물로 먼저 꽃대 끝에 한 개의 꽃이 피고 그 주위의 가지 끝에 다시 꽃이 피고 거기서 다시 가지가 갈라져 끝에 꽃이 핀다. 대칭부채, 미나리아재비, 수국, 작살나무, 백당나무 등이 있다. 이 델로스페르마의 속 식물은 온도와 햇빛만 좋으면 거의 연중개화 하는 습성으로 최근에 매우 다양한 품종개발이 되고 있다. 다만 내한성이 대체로 약하여 서리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따뜻한 온실이나 실내용 화초로 기르고, 그 외에는 사막 정원이나 화단의 가장자리에 기른다.



Delosperma cf. congestum



Delosperma cooperi

비단세덤(D. cooperi)은 -8℃까지에서도 살아 남아 겨울에 조금만 보온하면 중부지방까지 견딘다. 온실에서 빛이 충분한 곳에 표준 선인장과 같은 재배하고 환기를 잘 해 주어야 좋다. 자라는 동안 적절히 물을 주고, 3주마다 비료를 주고 그 이외에는 건조함을 유지한다. 옥외에서는 배수가 확실해 되는 토양에 햇빛이 충분한 곳에 기른다. 증식은 봄이나 여름에 기온이 21℃일 때 파종을 하거나 줄기 꺾꽂이를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깍지벌레와 진딧물에 의한 피해가 있다. 또 여름 장마철에 세균성 곰팡이 병의 발병이 쉽게 일어 날 수 있어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남부 지방에서는 겨울 상록으로 관목의 형태로 자라므로 축대 위나 단 치가 있는 콘크리트 위에 심어 늘어뜨리면 좋다.



Delphinium



Delphinium



Delphinium

제비꼬깔 속(Genus Delphinium)

제비꼬깔 속 식물은 일년생, 이년생, 그리고 다년생 식물로 250여 종의 속으로 주로 호주와 북극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산악지대에서 발견이 된다. 따라서 고산성 북방계 혹은 남방계 식물로 대부분은 섬유모양 혹은 다육성 뿌리를 갖고 있거나 때로는 구를 형성한다. 봄과 여름이 대체로 서늘한 지역을 갖는 유럽과 북미 등의 정원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정원식물이다. 특히 키가 큰 1년생 및 2년생의 경우 절화용으로 많이 재배된다. 주로 봄에서 초여름 사이 혼합정원에서 뒷자리를 지키 포인트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매우 다양한 화색을 갖지만 주로 연한 분홍과 보라색, 그리고 하양의 계통들이다.

키가 작은 종들은 암석정원에 많이 기른다. 이는 고산성식물의 대표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물 빠짐이 좋고 통기성이 좋으면서도 수분은 잘 공급되는 그런 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5, 6월 좋은 꽃을 볼 수 있지만 여름 장마에 많이 고사하므로 매우 어려운 식물로 취급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6종의 다년생 식물이 존재한다. 이들과 비슷한 투구꽃과 비슷하게 모든 부분들은 먹었을 경우 볼레감을 유발하며, 잎과 접촉 시 피부 염증을 유발한다. 재배는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햇빛이 잘 들고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 키가 작은 다년생 식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긴 지주대가 필요하다. 전가지가 많고 성장이 느린 종은 일정한 높이에 네트를 이용지해주고 키가 크고 꽃이 큰 종은 튼튼한 막대를 이용 줄기를 고정한다. 봄 중순 이전 혹은 높이가 30cm에 달했을 때에 지지대를 해준다. 좋은 품질의 꽃대를 원할 경우 처음 순이 나와 7~10cm가 되었을 때 포기당 튼튼한 줄기 2~3개만 남기고 포기가 큰 최성기의 식물은 싹을 5~7개 정도를 남긴다. 성장 중에는 모든 물을 충분히 주고, 2~3주마다 액체 비료를 공급한다. 꽃이 지기 시작하면 화경을 짧게 자르면서 시든 꽃을 제거한다. 가을에 시들기 시작하면 모든 줄기를 지면 높이로 자른다. 증식은 초봄 기온이 13℃ 이상이 되면 파종을 한다. Elatum, Belladonna 등의 재배종은 7~10cm 길이 일 때 속은 줄기 중 연필처럼 두꺼운 부분은 꺾꽂이를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민달팽이, 달팽이, 일나방, 제비꼬깔모충, 잎마름병, 흰가루병, 화단 부패 및 가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좀새풀 속 (Genus Deschampsia)

좀새풀은 화본과의 식물로 주로 군생을 하거나 덩불을 형성하는 초본으로 일부 상록성의 종류 있는 여러해살이 풀로 50여 종의 속, 극지방과 온대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축축한 목초지황무지, 숲 속의 개간지, 열대지역의 높은 산에서 발견이 된다. 앞은 실 같이 가늘고 조밀한 원형 덩불을 형성한다. 그 들은 아름다운 포기의 단정된 모습이나 가늘고 하늘 거리는 원추꽃차례의 품격을 위해 길러진다.



초목 혹은 관목의 가장자리나 암석정원, 혹은 혼합 식재의 야생화 정원에도 적합하다. 키가 큰 종의 이삭줄기는 생화나 말린 꽃꽂이에 사용된다. 내한성 뛰어나며 재배는 약간 축축한 습지에서 건조지까지 그리고 중성에서 산성의 토양에도 생육이 잘되며 충분한 햇빛과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곳에서 기른다. 정원에 식재된 충분한 퇴비를 주는 것이 싱싱한 질감의 잎과 포기를 볼 수 있다. 포기가 매우 조밀하게 자라며 이른 봄이 되어도 그 형태를 유지함으로 이른봄 새 싹을 위하여 전년도의 묵은 잎과 줄기는 제거한다. 증식은 봄이나 가을에 원 자리에 파종을 하거나 봄의 중순이나 초여름에 분주한다. 특별한 해충 및 질병은 없다.

말발도리 속 (Genus Deutzia)

주로 낙엽성의 관목의 60여 종의 속으로 히말라야에서 동아시아의 관목이 우거진 곳과 삼림지에서 발견이 된다. 대부분은 다 자랐을 때 나무 겹질이 벗겨진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의 말발도리가 있는데 대부분 청초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어 많은 사랑을 받는다. 주로 잎은 3-7cm로 마주 나고 난형에서 창형까지 있으며 주로 톱니형이다. 꽃 잎은 주로 5쌍이 기본이나 최근에는 겹꽃 등이 개발되어 많이 이용된다. 특히 여러 종류의 다양한 품종들이 도입되었고 핑크색도 여러 종이 있다. 보통 봄에서 초여름까지 꽃을 피우는 좋은 관목이다

모든 종은 관목 화단에 적합하고 큰 종은 포인트 식물로 적합하다. 추운 지방에서는 서리에 내한성이 있는 말발도리를 이용 생울타리를 만들거나 교목아래 혹은 다른 관목과 혼합하여 기른다. 증식은 냉상의 모판이나 화분에 가을 파종을 한다. 여름에 삽목을 하거나 가을에 잎을 떨어뜨린 이식하여 심는다. 우리나라도 최근 다양한 관목에 관심이 쏠리면서 더욱 말발도리 속도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다양성이 강조되고 자연 형의 정원에는 가지의 자유로움과 하얀 꽃을 피우는 우리의 매화 말발도리 등의 자연미와 생 울타리나 군식을 할 때는 많은 가지를 내는 도입 말발도리의 품종들을 선택, 재배하면 좋다. 해충 및 질병은 거의 없다.



Special Issue

달콤한 상상, 초콜릿원으로 초대

초콜릿색으로 채워진 정원의 느낌은 어떨까. 이제는 정원마다 개성있는 테마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혼합식재 정원에서부터 향기가 좋은 허브정원, 품종으로 대표되는 품종원(호스타원, 후룩스원, 그라스원 등), 꽃으로 무지개와 같은 형상을 재현한 무지개원, 꽃과 잎의 색감을 이용한 칼라정원 등이 있다.

잎의 색감이 붉은색과 갈색톤의 식물들로 정원을 조성해보면 어떨까. 이 정원도 칼라정원일 것이다. 그리고 초콜릿원으로 불러보면 어떨까. 달콤한 느낌이 정원속에서 느껴지지 않을까. 그 달콤한 느낌의 초콜릿원을 채워줄 식물들을 소개해 본다.

1. 클로버 '초콜릿'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 클로버로서 잎이 흑갈색으로 세잎(행복), 네잎(행운), 다섯잎(사랑)이 같이 나오는 이색적인 품종이다. 생육이 강건해 어디에서도 잘 자라고 잔디대용으로도 좋다. 색감이 좋아 문양을 연출할 때에도 유리하다.

2. 적엽좁쌀풀

새순이 나올때부터 적색의 잎이 윤기있게 나오는 좁쌀풀이다. 원래 습기가 많은 수변가에 잘 생육하지만 일반지에서도 생육이 왕성한 수종이다. 6~7월경에 노란색꽃이 적색의 잎 사이에서 피어 나온다. 정원에서는 여름에 너무 옷자랐을 때 적정하게 커팅을 해주면 단정한 모습을 유지해 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너무 건조한 땅에서는 생육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3. 붉은애기평의비름

세덤류중의 하나로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진한 붉은 색채를 띄는 잎은 세덤류 중에서도 관상가치가 뛰어나다. 잎 만큼이나 꽃도 붉은색으로 아름다운 수종이다. 반포복성으로 초콜릿원을 조성할 때 앞라인이나 돌을 이용한다면 돌주변에 식재하면 잘 어울린다. 건조해 강한 반면 습기에는 약해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식재를 해주어야 한다.

4. 매자나무

매자나무는 그 품종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 적자색을 띄는 품종의 매우 아름다운 잎은 경관 관목으로 활용가치가 뛰어나다. 품종에 따라서 직립성으로 자라거나 옆으로 퍼져 자라는 품종이 있다. 잎이 진한 적색을 띄는 품종도 있고 적색바탕에 무늬가 있는 종류도 있어 구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초콜릿원을 조성할 때 관목으로 활용하면 좋고 이 외에도 암석가든, 돌메지, 띠죽자용으로 좋은 소재이다.



5.적엽휴케라

휴케라는 잎이 아름다운 대표적인 다년초이다. 품종에 따라 적색계열, 녹색계열, 무늬종 등이 있고 초콜릿원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적색계통의 품종이 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잎은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느낌을 전달한다. 고급정원의 포인트 식물로도 좋고 분화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며 초콜릿원을 조성할때 빠질 수 없는 핵심소재이다.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좋고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6.적엽벚꽃나무

강렬한 적색의 벚꽃나무로 생장이 강해서 빨리 자라며 높이 1~2m 까지 자란다. 적색의 잎사이로 적색의 병 모양 꽃이 대롱대롱 매달리면 마치 어두운 밤에 꽃등이 반짝반짝 불을 밝힌 듯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초콜릿원에서 포인트로 또는 군식으로 좋은 관목이다. 양지는 물론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이다.

7. 적엽너도부추

잎이 적색을 띠는 너도부추로 크기가 작게 자라 정원에 되도록 군식을 하는게 유리하다. 대체로 건조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상록의 잎과 양중맛은 꽃을 가지고 있어 초콜릿원 조성시 알록 식물로 좋은 소재이다.

8.붉은잎동자꽃

일반 동자꽃과는 달리 새순이 나오면서 꽃이 피기전까지 잎이 강한 적색을 띤다. 꽃이 피게 되면 적색이 옅어지지만 꽃 또한 진한 주황색으로 피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대체로 양지를 선호하지만 활엽수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다.



9.삼색조팝

이른 봄 적색으로 나오는 새순은 그 어떤꽃보다 아름답다. 특히 꽃이 없는 이른 봄이라 더욱 돋보인다. 여름을 지나 가을에 들어 서면서 물드는 적색 단풍은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10.홍띠

붉은 잎이 주는 아름다움으로 고급정원에 많이 이용된다. 땅속줄기에 의해 퍼져 나가므로 다른 식물로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펜스를 해주는게 좋다. 군식했을 때 더 효과를 좋은 수종이다.



11. 펜스테몬 상록홍엽

붉은색 가지에 하얀꽃이 더욱 돋보이는 펜스테몬 품종이다. 봄에 꽃이 피기전의 붉은색의 잎과 꽃이 진후에도 마찬가지로 붉은 느낌은 그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꽃이 지면 바로 꽃대를 잘라주어야 이후에도 깨끗한 잎을 볼 수 있고 겨울에도 잎이 반상록으로 월동을 한다. 생육도 강건하여 키우기가 수월한 식물이다.

12. 아주가

초콜릿색의 잎이 좋은 키작은 식물이다. 활엽수 음지에 효과적이고 약간의 습기있는 곳을 좋아하며 특히 건조에는 약하다.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비옥한 토양에서는 더욱 좋은 잎을 보여준다.



13. 가우라베이비

가우라베이비는 장기개화되는 수종으로 정원에서 인기있는 수종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잎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띄고 있어 잎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있다. 붉은색의 잎과 장기개화되는 꽃이 어우러져 초콜릿빛 원 조성시 필수품목이 되지 않을까



14. 단풍세덤

포복성 세덤류 중의 하나로 잎이 적색을 가지고 있다. 건조에 강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식재를 해야한다. 특히 돌틈이나 그 주변에 식재하면 좋고 정원에 돌화분이나 장식용화분을 놓는다면 베이스 식물로도 좋다.



15. 갈사초

와일드한 느낌의 갈색사초로서 '브론즈'품종은 진한 초콜릿색으로 흐르는 머릿결 같은 품이 고급스럽다. '햇살' 품종은 햇살처럼 퍼지는 직선과 잎의 끝 말림이 조화롭게 연출된다. 대형화분에 식재해도 좋다. 내한성이 약해 겨울보온이 필요하다.



브론즈



햇살

15

14

코스모스의 새이름

초콜릿코스모스

- 달콤한 초콜릿향의 아름다운 꽃
- 5월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 분지력이 좋아 꽃수가 많다.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정원용 디스플레이 식물

우리꽃 빅사이즈 화분

박람회 등 행사용으로 안정맞춤!
식재후 곧바로 완벽한 정원 조성!



우리꽃 빅사이즈 화분용 상품은 충분히 자란 정원용 식물을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오랫동안 재배하여 큰 포기로 자란 식물로 화분 혹은 기타의 용기 등에 심겨져 이용 후 바로 그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심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 제 모습을 보여주던 정원에서 심고 나면 곧 바로 아름다운 최상의 정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031.634.7990



양귀비, 금단의 꽃에서 만인의 연인으로

- 지역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양귀비는 이제는 조경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아직도 볼충제로 이를 능가할 만한 소재가 많지 않다. 하지만 처음에 양귀비를 국내에 들여와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볼충제현장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데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양귀비가 우리나라의 조경현장에 정착된 과정과 주요 지역축제현장을 사진과 함께 돌아보고자 한다.



I. 양귀비의 도입

'양귀비'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순간 무엇을 떠올리는가? 불과 10년 전만해도 '마약'이라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었다. 그만큼 우리에게서는 어렸을때부터 익숙해진 학습효과 때문일거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양귀비는 마약으로 명시되어 있어 재배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관상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

중국 당나라 현종때 빼어난 미모와 총명함으로 현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시대의 흐름을 어지럽히며 일세를 풍미하다 3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 절세의 미인 양귀비, 그녀처럼 너무나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아름다우나 마약성분으로 인해 사람들을 어지럽히

는 꽃으로 분류된 양귀비, 금단의 꽃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여행이 자유화되고 외국으로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유럽쪽을 다녀오면서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었고 특히 마약에 관해서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규제가 심하다는 일본에서조차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 나쁜 것은 철저히 규제하되 좋은 것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이다.

즉, 양귀비는 위에서든 말했듯이 법적으로 재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모든 품종이 그런 것은 아니다. 마약성분인 물관을 함유하고 있는 파파베르 송니페움, 세티게움 이라는 2품종만이 규제품종으로 명시되어 있다.

양귀비는 세계적으로 약 100여종이 분포되어 있고 이들은 화단용 외에 절화용, 분화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꽃'에서 우리법면 혼합종자에 잉글랜드양귀비를 혼합하여 조경용으로 판매한 것이 시작이었다. 판매후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하였다. 그 반응은 두가지. 너무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신고'이다. 그렇게 초기에는 몇몇의 납품받은 거래처에서 주변의 신고로 애를 먹었으나 근거자료 등을 통한 적절한 해명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04년 여름,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법면 혼합종으로 시공된 양재천 일부 구간에 핀 양귀비를 보고 신고가 들어간 것이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다. 그 결과는 한달



잉글랜드양귀비를 중심으로 수레국화, 인개초, 끈끈이대나물이 혼합되어져 있다.



드넓은 곳에 펼쳐진 양귀비 꽃밭

III. 가을에 파종하는 양귀비

뒤 국과수에서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성분의뢰결과를 통해서 해당 언론사의 정보로도 마무리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그 당시만해도 일대 흥역을 치렀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오히려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인식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II. 볼충제 현장, 최고의 선택

양귀비축제를 처음 시작한 것은 포천부식물원 양귀비축제이다. 아마도 양귀비를 일반인들에게 즐길 수 있는 관상용꽃으로 확실히 인식시켜 주었던 행사가 아닌가 싶다.

잉글랜드양귀비, 아이슬란드양귀비, 캘리포니아양귀비 등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5월말부터 약 1달간 양귀비축제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양귀비였을까. 봄이면 대표적으로 유채를 이용한 축제를 생각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연상한다. 하지만 비할바가 아니었다. 다시말하면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양귀비는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것이다. 뒤를 이어 파주 심학산 돌꽃이 축제에서도 양귀비의 위력은 대단하였다. 도로변에 인접한 나지에 대면적의 양귀비 군락. 지나가던 대부분의 차들은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저절로 양귀비 꽃밭으로 발길을 향하며 탄성을 내질렀다.

이 외에도 함양 한들나라 꽃축제, 영광 은누리 꽃축제, 용인 어머니터 관광농업단지 등이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양귀비축제로 기억되어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양귀비를 이용한 축제가 계속이다.



수레국화를 중심으로 잉글랜드양귀비가 혼합되어져 있다.

양귀비의 종류



IV. 사진으로 보는 양귀비정원



함양 상림



청계광장



용인 내동마을 꽃축제



포천유식물원



영광 은누리 꽃축제



일조 화선지



파주 심학산둘레길아축제



함평엑스포



함양 한들나라 꽃축제

우리씨드 박공영 회장과 함께하는

지금은 정원시대!

정원의 시공과 현장관리
인턴을 모집합니다.

이제는 정원이 대세!

정원 조성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실험해온 우리꽃에서 정원 시공, 관리 인턴을 모집합니다.

스파르타식 현장교육을 통해 현재의 당면과제는 물론 미래의 새로운 패턴을 창조해 나갈

박공영 사단의 핵심으로 성장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현장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지원하세요.

모집기간 : 2015년 8월 1일 ~ 9월 30일

모집인원 : 2~3명

모집조건 : 조경, 원예, 농업관련 학과 전공자 / 농고 졸업생 우대

교육장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인턴기간 : 3개월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우리씨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신청방법 : 이력서 제출 (메일주소 : jhseo@uriseed.com)

문의는 031. 634. 7990 으로 해주세요



정원의 필수선택 *Buddleja*(붓데레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꽃이 아름다운 관목은 무엇이 있을까. 언뜻 생각하면 장미가 제일 먼저 다가온다.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꽃이 좋은 관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종으로 붓데레아를 소개 하고자 한다. 몇 년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던 붓데레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용폭이 작고 품종도 한정되어 있어 그 이용성과 품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여름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이번에 소개할 붓데레아(*Buddleja davidii*)는 마전과의 식물로 유럽의 정원에서는 조경용 소재로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들어온지는 오래 되었으나 아직 많은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 품종도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붓데레아는 꽃의 생김새나 진한 향기가 비슷하고 여름에 꽃이 한창이라는 점에서 '썸머라일락'이라 부르기도 한다. 개화기간이 6~9월로 관목성 화목류로는 최장기 개화한다. 꽃이 질때쯤 꽃이 피는 가지를 제거해주면 더 많은 꽃을 계속 만날 수 있다. 대부분의 관목성 화목류가 봄철 개화가 집중되어 있어 여름 이후로 꽃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붓데레아의 장점은 무엇보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품종이 내한성이 강해 우리나라 전지역에 적용이 가능하며 꽃이 많아 나비가 많이 모이는 꽃으로도 유명하다.

키는 일반적으로 2~3m정도 자라며 근래 들어서는 약 1.5m정도 자라는 왜성종도 선보이고 있다. 품종에 따라 보라색, 하양색, 분홍색 등 화색이 다양하다. 꼬리처럼 길게 피는 꽃은 이색적이며 요즘의 건축정원 형태에 매우 좋은 관목이다.



큰 용기에 재배중인 붓데레아

다양한 품종, 붓데레아원으로 초대

이용성면에서 철쭉이나 생울타리용 관목의 뒤편에 적용하거나 사면 혹은 펜스나 벽면 앞쪽 등 건물차폐용으로 사용해도 좋다. 또한 대형의 품종은 일반 야생화나 그라스 정원에 포인트식물로 활용가치가 높다. 작은 정원에 나무 한그루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붓데레아가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성면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현재 각 지자체나 식물원 등에서 품종 관목원으로서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장미원을 조성한다. 새로운 볼거리는 디자인이라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재의 발굴도 중요하다. 이제 관목원도 다양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붓데레아는 그 품종이 다양하고 꽃이 아름답고 장기개화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목원조성에서 제일 유망한 품종군이라고 볼 수 있다.

물빠짐 좋은 비옥한 토양에서 꽃이 많고 색이 좋아지며 알칼리성 토양에 강하며 산성토양에서는 석회를 추가하면 된다. 이른 봄 묵

은 가지를 잘라 새로운 튼튼한 가지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자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퇴비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다. 꽃이 진 꽃대를 잘라주면 다시 측지에서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복합비료 또는 유박비료를 커팅후 살포하면 더욱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블루에서 화이트까지 다양한 화색의 품종을 이용하여 현장에 맞게 적용한다면 이국적이면서 강건하여 여러 조경현장에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기대되는 관목이다.



연못주변에 식재되어진 붓데레아



키가 작은 왜성종

붓데레아의 종류



양귀비 가을에 파종하세요!!

양귀비는 가을 파종이 적기입니다.
지금 서둘러 준비하세요.



가정용 꽃씨봉투, 대면적용(kg단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서봄과 정원식물 나들이



서봄

장래 최고의 가든디자이너가 되기를 꿈꾸며 대한민국 하늘아래
폭풍성장중인 아이

꽃천지에 푹 빠져요!! 코레우리



가능하고 꽃의 크기, 식물의 형태, 잎의 색상 (노란색) 등 품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코레우리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품종이라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는 화훼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아직도 화훼 부분은 걸음마 단계라고나 할까요. 그런 점에서 코레우리는 일본과 유럽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로얄티수출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국내외로 더욱 기대가 되는 '코레우리'입니다.

'코레우리'. 그동안 가든인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죠. 실제로 저도 직접 꽃을 보니 잎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현장에서 직접 코레우리를 만나니 품종별로 다양한 화색과 꽃이 주는 고급스러움 등등.. 그야말로 꽃천지에 빠진 느낌이랄까.

특히 한강공원에 코레우리로 장식한 무지개원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외국의 경관사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경이 바로 우리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다양한 색상을 바탕으로 라인별로 짙게 펼쳐진 모습에 공원에 나오셨던 시민들은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지금은 1차 개화가 끝나고 꽃대를 커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코레우리의 또다른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개화되는 좋은 특성이 있어 1차개화 후 커팅해주면 3주뒤면 다시 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충분히 비료를 뿌려주세요. 식물이 사람과 똑같아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분이 있어야 해요. 복합비료를 주셔도 되고 장기간 효과가 유지되는 유박비료를 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어떤 품종은 동글동글한 구형의 품을 가지고 있어 꽃이 피기전에도 관상가치가 있기도 합니다.



골든볼, 노란꽃이 크고 탐스럽네요

코레우리는 조경 용으로도 좋고 분 화용으로도 안정 맞춘 품목입니다. 특히 품종이 다양해서 구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해요. 색상별로



눈부서요! 너무 아름다워서.

올해로 광복 70년, 우리는 화훼부에서 품종개발이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코레우리를 통해서 품종독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면 가슴한 곳이 벅차오르네요.



동글동글 식물품이 귀엽네요

코레우리 따라가기



강남구청 화단에 라인으로 심겨진 퉁커벨골드의 노란잎이 눈에 확 띄네요.

북서울공의 숲, 야생화정원에 자리잡은 코레우리 미리

우리꽃연구소 정원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코레우리

오아시스 화분에 포인트로 자리잡은 브론즈글로브

코레우리와 가우라베이비가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 한강 무지개 정원.

고급주택정원에 더욱 잘 어울립니다.

코레우리 하디사리즈가 대면적에 펼쳐져 있네요



우리꽃 연구소

국내 야생화 연구의 중심 / 신품종 및 신기술 개발
네덜란드, 미국, 호주 등 해외 로열티 수출



우리꽃 영농조합법인

묘종(야생화, 일반초화), 종자(야생화, 일반초화, 우리법면 혼합종, 채소), 구근(춘식, 추식)
특수관목 생산 및 판매
새로운 신품종의 국내 로열티 사업



벽화수 주식회사

도시와 자연의 결합, 미래 친환경을 선도하는 조경건설
벽면녹화(벽화수, 타잔), 고급정원(혼합, 혼성식재)
에코홀시스템(생태옹벽, 축대, 생태하천 블록)



가든조아

생활원에 핵심 콘텐츠를 공급하는 원예제품 쇼핑몰
조경가든대학, 가든센터, 정원소재



신품종 연구개발 및 로열티 수출

햇도그처럼 생긴 부들의 꽃과 열매

이명호의 야생화

“부들”

부들의 특징

물이 고인 습지나 논 등을 오래도록 방치해 두면, 어디서 왔는지 느닷없이 큰 키를 자랑하면서 갑자기 불쑥 자라 올라오는 식물이 있다. 여름철 내내 햇도그 모양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는데, 바로 '부들'이다. 연못 가장자리와 습지에서 자란다. 높이 1~1.5m이다.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퍼지고 원주형이며 털이 없고 밋밋하다. 잎은 나비 5~10mm의 줄 모양으로 출기의 일부분을 완전히 둘러싼다. 물에서 살지만 뿌리만 진흙에 박고 있을 뿐, 잎과 꽃줄기는 물 밖으로 드러나 있는 정수식물이다.



부들(후기1)



부들(후기2)



부들과 애기부들



부들(접사)

부들의 꽃과 열매

꽃은 6~7월에 황색으로 피고 원주형의 꽃이삭에 달린다. 위에는 수꽃이삭, 밑에는 암꽃이삭이 달리며, 두 꽃이삭 사이에 꽃줄기가 보이지 않는다. 수꽃은 황색으로 피고 암꽃은 녹색으로 폼뿔이 꽃가루받이가 완료되면 수꽃은 검은색으로 흔적만 남게 되고 암꽃은 딱딱한 갈색 열매로 변하게 된다. 포(苞)는 2~3개이고 일찍 떨어지며 꽃에는 화피(花被)가 없고 밑부분에 수염 같은 털이 있으며, 수꽃에서는 화분(花粉)이 서로 붙지 않는다. 같은 꽃줄기에 수꽃이삭과 암꽃이삭이 함께 달려 있는데 처음에는 모두 부들부들하지만, 수꽃이삭이 꽃가루를 날려 떨어져나가고 검게 흔적만 남기고 있을 때에는 밑에 있는 암꽃은 딱딱하게 굳으면서 열매로 변한다. 열매이삭은 길이 7~10cm이고 긴 타원형이며 적갈색이다.



큰잎부들(초기)



큰잎부들(초기접사)

부들의 번식전략

시기가 더 지나면 열매가 부서지면서 목화솜처럼 하얗게 흩어지면서 밑에 작은 종자를 하나씩 달고 바람에 날려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공기보다 가벼울 것 같은 작은 종자는 길고 흰 솜털에 싸여서 바람을 따라 멀리 이동을 해서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듬해 봄철에 싹을 틔우게 된다. 식물은 자기를 닮은 후손이 한 군데에 모여 사는 걸 원하지 않고, 서로 멀리 떨어져 넓은 영역에서 고루 퍼져 자라는 걸 원하기 때문에, 긴급적 종자를 멀리까지 퍼지게 하는 수단으로 종자는 깃털이나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애기부들(군락)



애기부들(수꽃)



애기부들(암꽃)



애기부들(암수꽃)

부들이라는 이름의 유래

부들은 잎과 꽃이삭의 감촉이 부들부들하다고 해서 부들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 뜨거운 여름날 바람에 의해 꽃가루받이(受粉)가 이루어지는데, 꽃가루받이가 일어날 때 몸체가 부들부들 떨리기 때문에 부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도 한다. 꽃이삭의 모양은 햇도그처럼 둥글고 길게 생겨 있는데, 개울가나 연못 등 냇가를 좋아하는 습지식물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부들의 종류도 4가지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부들 종류의 분류

이 종류들은 모두 암꽃이삭은 밑에, 수꽃이삭은 위에 붙는다. 암꽃이삭과 수꽃이삭이 서로 바짝 붙어 있는지, 또는 서로 분리되어 따로 떨어져 있는지의 여부와 암꽃이삭의 길이와 형태에 따라 종류를 구분한다. 암꽃이삭과 수꽃이삭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은 부들과 큰잎부들이고, 암꽃이삭과 수꽃이삭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은 애기부들과 꼬마부들이다. 부들 잎의 폭은 0.5~1cm, 큰잎부들은 1~2cm 정도이고 화분이 4개씩 합쳐져 있으며, 다소 분백색을 띠고 있다. 애기부들은 암꽃이삭이 긴 원통형이고, 꼬마부들은 암꽃이삭이 짧고 통통하게 생긴 것이 특징이다. 꼬마부들의 크기는 부들 종류들 중에서 가장 작는데, 크기가 작다는 접두사를 붙여 좀부들이라 부르기도 한다. 애기부들과 꼬마부들의 잎의 폭은 대개 0.7cm 이하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큰잎부들(열매)



꼬마부들



부들(완숙열매)



꼬마부들(접사)



꼬마부들(풍경1)



꼬마부들(생태)

부들의 용도

잎은 방석을 만들고, 화분은 한방에서 포항이라 하여 지혈(止血)·통경(通經)·이뇨제(利尿劑)로 사용한다. 민간요법으로는 흰솜털 같은 섬유질을 화상의 환부에 붙이면 통증이 없어지는 효능이 있으며, 지혈효과가 있어 타박상의 상처에 꽃가루를 뿌리면 상처가 빨리 아물어 염증 치료제로 쓰고, 최근에는 꽃꽂이 소재로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습지식물인 부들은 특성상 하천의 수질 정화용으로 갈대와 함께 쓰이며, 물의 여과제 역할을 한다. 또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 생명체를 품어 기르기도 한다.



부들(완숙열매군락)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노란꽃과 매운탕에 꼭 끼는

쑥갓 Crown Daisy



클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생선매운탕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쑥갓이다. 쑥갓의 독특한 향과 풍미는 생선의 비린 맛을 없애 줄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을 만들어 준다. 한여름 시원한 대청마루에 앉아서 상추에 싱싱한 쑥갓 한줄기 얹어놓고 밥 한술에 양념고추장 떠놓고 한 쌈 싸서 큰 입 벌리고 씹으면 쑥갓의 향이 입안에 가득해진다. 지난해 연안 지방이 원산지인 쑥갓은 국화과식물로 유럽에서는 주로 보고 감상하는 용도로 재배된다. 쑥갓은 온대성 기후를 좋아하지만 내서성이 상당히 강하고 병해에도 강하다. 또 병충해 적고 생육이 빠르기 때문에 아열대지방에서는 주요한 채소 중의 하나이다. 쑥갓은 인도의 벵골, 아삼 북부에도 보급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옛부터 채소로 재배하여 왔다고 한다. 쑥갓의 학명 *Chrysanthemum*은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금(金)을 뜻하는 *chrysa*와 꽃(花)을 가리키는 *anthemon*이 합쳐진 것이다. 종명인 *coronarum*은 왕관(王冠)모양의 뜻으로 쑥갓꽃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세진(1473?~1542)이 편찬한 훈몽자회(1527년)에 쑥갓이 등장하고 있어 이때 식용된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문헌인 화한삼재회(漢三才圖會)(1712년)에는 쑥갓을 고려국高麗衛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처음 도래된 시기는 이조 초기 또는 그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쑥갓은 품종의 분화가 많지 않다. 크게는 중국에서 심는다는 소엽종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재배해 온 증엽종,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재배하는 대엽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추와 쑥갓은 마치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이다. 상추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쑥갓도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보리밭 하면 상추와 쑥갓, 그리고 고추장이 먼저 떠오른다. 상추와 쑥갓은 서민의 식생활 문화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비타민의 공급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쑥갓과 상추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상추는 익혀 먹는 법이 없이 늘 날것으로만 먹지만, 쑥갓은 날 것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익혀서 먹기도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재배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봄채소로서 마당 텃밭에 채소나 관상용으로든 즐겨 심었다. 7~8월에 피는 쑥갓의 노란 꽃은 마치 국화꽃과 같아서 분홍색 채송화나 봉선화와 잘 어

울린다.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묘봉리에 사셨던 큰덕의 안행원(작고) 아저씨는 '한여름 텃마루에 앉아서 큰 상추 앞에 쑥갓을 얹고 식은 보리밥에 고추장 넣어 큼직하게 싸서 한입 우겨넣어 먹는 맛은 시골사람이나 알지…….' 하시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앞마당 끝에 늘 상추와 쑥갓 씨앗을 뿌렸다.

쑥갓의 성분은 대개의 다른 채소들과 비슷하지만 칼슘, 철분, 비타민 A·B·C 등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다. 10여 종을 넘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고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산, 감마부티린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상당히 유익한 채소라고 할 수 있다. 쑥갓은 심기를 편하게 하며 비위를 보양하고 담음을 삭히는 효능이 있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온화한 약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금기사항이 있는데 설사 증세가 심할 때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독특한 향기를 내는 방향성유 성분은 위를 따뜻하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며 식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 식물성 섬유가 장을 적당히 자극하여 변통을 좋게 하기도 한다. 외용으로는 타박상, 동상, 빈대 쑥갓즙을 따뜻한 거즈에 묻혀 붙여 주면 효과가 있다. 앓을 그늘에 말려 입욕제로 사용하면 몸이 따뜻해져 신경통, 어깨 결림, 냉증 등에 효과가 있다. 약효 상으로나 건강 영양 상으로 보아서나 상추와 쑥갓은 우리의 식탁에 자주 올라야 할 사이좋은 단짝인 것이다. 쑥갓은 향이 독특하고 맛이 산뜻해서 날로 먹어도 좋고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살짝 데쳐서 먹어도 그 맛이 좋다. 유럽에서는 식용을 하지 않고 꽃으로 정원에 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마당 끝에 심으면 향기 때문에 벌 나비도 많이 오고 해충도 별로 없어서 늦은 봄 한철에 먹기도 하고 보면서 즐기기도 하니 참 좋은 채소이다.



쑥갓의 꽃 쑥갓은 여름철의 중요한 열매로뿐만 아니라 텃밭의 예쁜 꽃으로도 좋은 채소~



소엽쑥갓 소엽종은 경남지방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잎이 작고 갈라져 심하며 압록이~



소엽쑥갓의 꽃



쑥갓 대량 재배(포천)



쑥갓 가꾸기



쑥갓씨앗

《쑥갓 재배 방법》

- 재배시기: 생육적온은 15~20℃로 온대성기후를 좋아하지만 더위에 견디는 성질도 상당히 강하다. 추위에 견디는 성질도 비교적 강한 편이어서 10℃까지는 생육이 가능하다. 봄 기온이 15℃이상으로 올라가는 시기인 3월하순부터 4월 상순과 여름 높은 기온이 떨어지는 8월하순부터 9월 상순이 파종 적기이다. 발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횟수에 씨를 뿌려 마르지 않도록 유지시키면서 서늘한 실내에 두면 3~4일 정도 후 발아를 시작했을 때 약간 말려서 파종하기도 한다.
- 옮겨심기: 파종 후 4~5주면 본잎이 6~7매가 되고 키도 10cm가량 자란다. 이때 솟음수확을 하고 옮겨 심을 잎이 있으면 저녁 무렵에 물을 흠뻑 뿌리고 본밭에 옮겨 심고 물을 충분히 준다.
- 수확하기: 파종 후 한 달 정도면 본밭에서 솟음수확이 가능하다. 조금 더 자라서 키가 15cm 이상 자랐을 때 통줄기를 잘라서 수확 하면 밑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자라게 된다.
- 씨 뿌리기: 쑥갓은 상추보다도 꽃을 일찍 피운다. 6월 하순부터 7월 사이의 씨앗이 익어가는 기간에 비를 많이 맞으면 씨가 썩는 경우도 있지만 성숙된 씨는 7월 중하순 경에 따서 잘 말려서 보관 한다.

《쑥갓 제대로 먹기》

- 연하여 손상되기 쉬운 채소이므로 잎이 싱싱하고 색이 진하며 광택이 있는 것이 신선한 것 또 줄기가 너무 굵지 않고 줄기 아래쪽에도 잎이 잘 붙어 있는 것이 좋다.
- 국화와 같은 독특한 향기를 즐길수 있는 채소이므로 향기를 살리는 것이 포인트 이다.
- 성유질이 부드러운 상추와 함께 생으로 양념고추장으로 쌈을 먹으면 비타민의 파괴도 줄이고 맛도 좋다
- 가열할 경우는 흐물흐물할 때까지 불에 두지 않도록 한다. 향기가 달아나고 씹는 맛도 나빠진다.
- 데치거나 찌 때는 귀찮아도 줄기와 잎을 나눠 줄기가 데쳐지기 직전에 잎을 넣어 살짝 불을 통과하면 좋다.
- 무침이라든가 채소김이나 명렁가투를 썬는 등 약간 간헐맛이 있는 것을 썬는다
- 생선 조끼(조개)에 빼놓을 수 없는 채소이다.
- 그 외에 튀김을 하거나 생으로 샐러드를 해도 맛있다. 특히 카로틴의 함유량이 시금치보다 높다.
- 비타민 B, 비타민 C, 칼슘, 철 등도 풍부하고 또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진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COLOUR IN THE GARDEN

Autum Colour

가을의 색채

오도

플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이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Oxydendrum arboreum, Wisley Garden



Sheffield Park Garden

‘가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하자면 단연 오색으로 물든 단풍일 것이다. 노랑, 빨강, 주황, 갈색, 녹색의 다섯가지 색이 나뭇잎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나라의 산천을 물들인다. 단풍만큼이나 가을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은 국화. 국화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색깔도 여러 가지여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한다.

가을을 색으로 표현 한다면 빨강, 노랑, 주황이 만나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색채를 일 것이다. 가을 속에 숨어 있는 가을빛(Autum Colour)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단풍속에 들어 있는 갈색의 비밀을 알고 있는 가을

가을이 되면 낙엽수 대부분의 잎들은 단풍이 들었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 둘 떨어진다. 봄부터 여름까지 잎과 줄기에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양분을 몸체로 보내서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단풍잎 색깔 중에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색은 갈색일 것이다. 가장 많은 색이 갈색이기도 하지만 빨강과 노랑이 만나면서 또한 갈색을 보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갈색은 차분한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편안하고 친근감이 있으며 안정감이 느껴지는 색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잎에 가지고 있던 양분을 줄기로 보내고, 하나 둘 떨어지는 나뭇잎의 아름다움을 가을 정원에서 마음껏 느껴보자.



Nyssa sylvatica, Sheffield Park & Garden

국화꽃 잔치가 벌어지는 가을정원

다년생(숙근초)이면서 번식도 잘 되는 국화는 가을이 무르익기 시작하면 화사하게 정원을 수놓는다. 키가 작고 단정한 포트암 종류에서부터 1m내외의 야생 국화 같은 개미취(*Aster spp.*) 종류 그리고 꽃 하나가 엄청 커서 지주를 해줘야 하는 대국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꽃의 색깔도 다양해서 적재적소에 국화를 심으면, 국화만 가지고도 화단을 완성할 수 있다. 여름을 넘어 가을로 이어지는 화단을 설계할 때 적당한 꽃을 심거나, 어떤 꽃을 심을지 찾기가 어려울 때는 국화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Border of Chrysanthemum, Wisley Garden

태양 빛을 열매에 담아 풍성해 지는 가을

꽃들의 색이 다양하듯, 열매의 색도 다양하다. 가을이 되면 특히 녹색잎으로 가려져 있던 열매들이 익어가면서 각각의 빛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나무열매는 탐스러운 모양은 물론이고, 울긋불긋한 색들이 식욕을 돋운다.

외국의 정원을 걷다보면 과수정원(Fruit Garden)이 눈에 들어온다. 개인 집에서도 따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서 포도나 사과,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의 과일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 태양빛을 담아 먹음직스러운 열매의 아름다움을 정원에서 느껴 보자.



Hampton Court Flower Show

바람에 하늘거리며 가을을 부르는 벼과·사초과 식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과 나무로 정원을 장식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벼과·사초과 식물들을 정원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벼과·사초과 식물들은 대개 늪지나 습지에서 잘 자라지만 정원에서도 토양 조건을 잘 맞춰주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최근에는 원예품종도 많이 만들어져서 은색 잎이나 파랑색 잎을 가진 식물들도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정원문화를 만들어 가는 풍경이다.

Grass border, Wisley Garden

Gardenin Culture

Rhus-typhina-산초나무

Pennisetum alopecuroides, (fountain grass), 세럼 그리고 뿔뿔의 Juniper

Miscanthus purpureus

42 - Gardenin September

Gardenin September - 43

우리의 꿈은 정원 경영

손 관 화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영국 거울 로즈무어 가든



영국 거울 로즈무어 가든



영국 위슬리가든

정원 전문경영인의 실상

1학기 종강하자마자 (주)플로리안을 경영하는 권준희사장을 만나 요즘 만들고 있는 정원 현장과 시공 후 관리하고 있는 정원을 보러 다녔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가끔씩 정원 만드는 실무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견습을 하는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적나라한 문제점을 보면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드는 작은 정원들이 얼마나 시시한지 비교하곤 한다.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어제 심었던 나무가 다음 날 가보면 다른 곳으로 가 있고 크레인으로 힘들게 올린 돌을 건축가의 요구로 그 다음 날 들어내버리는 것 등을 보면서, 퇴직하고 나도 가드닝 업체를 경영하려고 고려하다가도 "아이구, 나는 안되겠구나,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저렇게까지 요구 사항대로 맞추기는 힘들 것 같아..." "나는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좋은 정원 시공자를 구하기 어렵다 한다. 학생들 하계 현장실습 지도 때문에 매년 여러 식물원과, 수목원 그리고 상업적인 정원을 다니는데 올해는 몇 군데 새로운 실습지를 추가하여 처음 방문한 곳도 있다. 몇 년간 계속 새로운 식물원과 수목원 또는 상업적 정원들이 만들어지고 이곳의 방문자들 중에 자신의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다. 외부 특강을 나가보면 식물원을 만들고 싶어 땅을 준비해두었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식물원과 수목원 그리고 상업적 정원의 실무자들에게는 자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영국 위슬리가든



영국 위슬리가든



영국 위슬리가든

정원 속 주인공의 꿈

몇 년 전 주인공이 가드너였던 드라마 '사랑비'의 작가가 가드너의 마지막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 때 가드너의 마지막 꿈은 언젠가 자신만의 정원을 가지는 것일 거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입장료를 받고 가든샵과 카페 또는 레스토랑을 겸 비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정원을 가꾸며 꿈같은 생활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꿈을 실행하고자 시도했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대부분 "경영난에 허덕인다"이다. 수익을 내고 있다는 아침고요수목원의 이사님에게 비법이 무엇이라고 물어 보자, "방문자가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는데 수익 중 많은 부분을 식물원 건물 재투자에 쓰고 있다고 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창기에 비해 해를 거듭할수록 화려한 꽃이 연중 끊이지 않는 식재계획 때문으로 보였다.



영국 할로카 가든

정원경영 지식을 습득하며 알고 뛰어들자

직접 정원을 경영해보지 않았고 여러 경영자나 실무자들에게 들은 내용이거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들이지만 새롭게 정원 경영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1. 먼저 정원, 식물원, 수목원의 명칭을 잘 구분하고 운영 목표를 다르게 정하라고 하고 싶다. 정원의 나라 영국의 예를 들어도 정원(garden), 식물원(botanic garden), 수목원(arboretum)이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정원(garden)의 명칭으로 정원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식물원 또는 수목원이란 명칭으로 개원되면서 그 역할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다. 최근 제이드 가든, 그림이 있는 정원, 파머스 가든 봄 등 몇 개가 정원이란 이름으로 개원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원은 관광농원(tourism farm)이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칭과 함께 운영 목표를 잘 잡아 정원, 식물원, 수목원의 역할에 맞게 운영해야지 많은 목표를 정해 다 하려고 하면 힘들 것 같다.



영국 할로카 가든



영국 할로카 가든

2. 다음으로는 규모를 조절해야 할 것 같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체 윤곽은 미리 계획해야겠지만 개원 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경제력에 따라 공간을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핵심적인 중심부와 그 주변부, 그리고 외곽부로 구분하여 핵심부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을 중심으로 식재하여 연중 완벽하게 관리해야 하고, 주변부는 손질을 조금 덜 해도 괜찮은

요소로 구성하고, 외곽부는 필요시 개발하거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거나 손질하지 않아도 되는 들판이나 숲으로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

3. 그 다음은 산이 아닌 평지를 정원으로 조성해야 할 것 같다. 전국 여러 곳에 조성된 많은 곳이 산을 끼고 만들어져 등산을 해야 다닐 수 있으며, 산에 갔는데 다른 일반 산보다는 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멀어도 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이 자주 오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원은 물론 항상 변화하는 꽃과 식물로 볼거리가 있거나 맛있는 차, 식사, 체험, 가든샵 등의 특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일본 하코네 베고니아 가든

4.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원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와 초화류 교체, 병충해 방제 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인건비는 비싸, 실무자들은 일을 따라잡을 수 없는 데 세월호나 메르스 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방문자들이 끊겨 유지할 비용이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부족한 인건비로 일을 하다 보니 정원이 잡초로 너털거리고 오래된 목재가 부서진 채 방치되고 화장실은 깨끗하지 않다. 많은 실무자들이 얼마나 힘들면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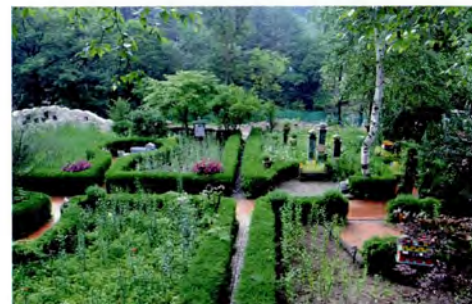
파머스가든 봄

5. 일본에서는 가까운 근교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방문객들이 30분 이상만 머물 수 있으면 유지할 수익이 나온다고 한다. 규모가 작아도 동산을 잘 만들어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작은 가든샵이나 카페를 만들어 가족이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규모가 작으면 깔끔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파머스가든 봄

그래서 의뢰인의 요구에 맞는 정원을 만들어 주는 가드닝업에 자신이 없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멋진 정원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단순히 정원만 잘 만든다고 경영을 할 수는 없다. 여러 조건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우선 시작하려면 좋은 위치에 정원을 조성할 토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집에 땅이 있으면 정원을 만들라 하는데, 반동답으로 땅이 없으면 꼭 땅이 있는 배우자를 구하라 한다.



허브나라농원



허브나라농원

“블루보넷”에서 펼쳐지는 꽃들의 향연 꽃을 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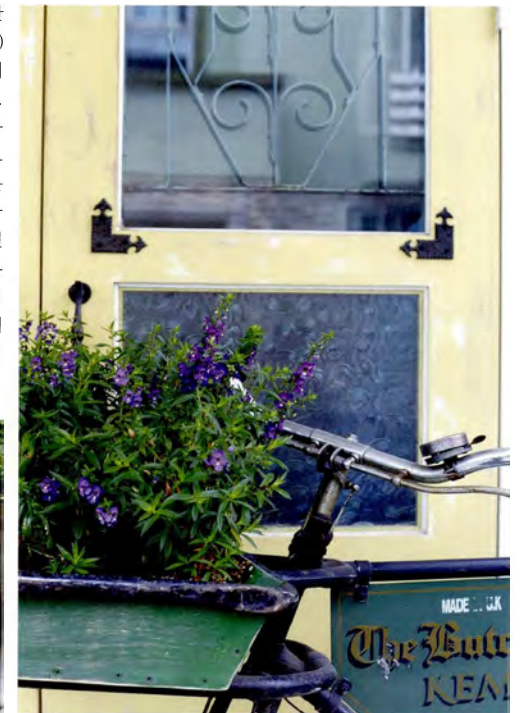


장소: 네이버 블로그 '가을내음'님의 "블루보넷"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345-6
글/사진: 실내디자인 김세경

조금이라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블로거 분들이라면 알만한 분이 바로 가을내음 님이다 (실명: 배경순 / 아이디: wood0910) 내가 인터넷에서 가을내음 님을 알게 된 것도 꽤 시크 바람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십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다. 설마 한국에도 저렇게 사는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은 가을내음 님의 블로그에 올라오는 포스팅들을 봐가며 놀라움에서 경탄으로 바뀌어 갔다. 게다가 저렇게 로맨틱하게 집을 꾸미고 사시는 분이 다른 분들의 집들을 리모델링 하기 시작하더니 그분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샵까지 여시는 게 아닌가? 언젠가 꼭 한 번 방문해 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취재를 위해 가게를 오픈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었다. 블로그에서 보았듯 샵 구석구석이 꽃들로 가득하리라 예상은 했었다. 하지만 샵에 들어서기도 전에 눈을 사로잡는 아담하지만 풍성하고, 단정한 듯 하지만 자연스러운 앞마당과 뒤뜰 풍경에 한참을 서성거리게 되었다.



내려다 본 발코니에도, 상으로 들어서는 문 손잡이며 불투명한 유리창도 온통 꽃밭이었다.





“블루보넷”에서 파는 모든 물건에 ‘꽃’은 빠지지 않는 소재라는 것은 그분의 블로그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들어오는 것은 구석구석 과하지 않게 놓여진 꽃과 꽃잎들이었다. 시든 꽃 하나도 이곳에선 허투루 버려지는 법이 없는 듯 했다.



그래서 가을내음의 블로그님에게 몇가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독자들도 꽃을 마음에 품은 샵의 구성과 정원문화속의 문화 컨텐트로 꽃이 주제가된 실내장식과 여인들의 교감을 쉽게 이해하리라 본다.

“블루보넷”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가을내음: 블루보넷은 편집샵입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옷이나 패션 등이 소외되게 되는데, “블루보넷”은 그런 그녀들을 위한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꽃을 좋아해서 그 모든 제품들과 꽃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옷, 가죽 백, 가죽 구두와 빈티지 소품과 가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블루보넷”의 테마를 꽃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을내음: 꽃을 보면 봉오리에서 만개할 때, 그리고 질 때까지의 모습이 한 여자의 일생을 보는 듯합니다. “블루보넷”은 이제 나이가 들어 그 나이에 어울리게 만개한 여자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꽃은 그래서 “블루보넷”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블루보넷이라는 단어는 ‘여자들이 즐겨 쓰는 보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 텍사스 주에 4월이면 피어나는 고풍적인 파란 꽃인 블루보넷 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말린 꽃과 꽃잎들을 디스플레이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된 생각을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을내음: 일부러 꽃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꽃에게 잔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에 담겨 있다가 자연스럽게 마른 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마른 꽃에서 풍기는 향기가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 피어있던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마른 꽃의 매력에 빠져 있어서 입니다.

“블루보넷” 앞마당과 뒤뜰에는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습니다. 가드닝은 직접 하시나요? 정원을 만들게 되신 이유와 정원에 대한 생각들을 듣고 싶습니다.

가을내음: 가드닝은 모두 직접하고 있습니다. 흙을 만질 때의 냄새와 보드라운이 건널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꽃과 빈티지는 연관성과 배합성이 훌륭합니다. 꽃만 놓여있을 때보다 꽃과 빈티지 제품이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두 가지 모두 압도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가드닝을 할 때 빈티지를 이용하는 모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속 여신상들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하루가 다 갈 것 같은 “블루보넷”이었다.





Vancouver Island-West coast trail, Canada - 밴쿠버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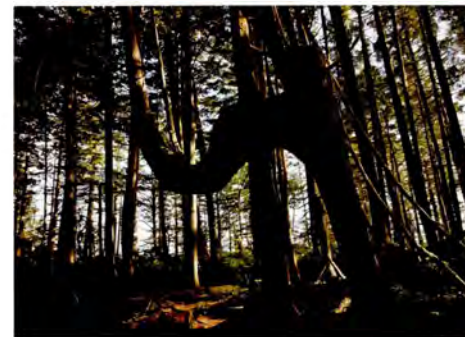
Vancouver Island 는 Canada 서쪽에 있는 긴 고구마 모양의 큰 섬이다. 그 섬 남쪽 끝에 그 섬의 주 도시 Victoria가 있고 그곳을 가려면 Seattle이나 Vancouver City에서 배를 타고 간다. Victoria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The Butchart Gardens가 있다. 탄광을 어느 부부가 일생 동안 고생해서 만든 정원이다.



글/사진 정수조경 정수진대표
서울시 강남구 율원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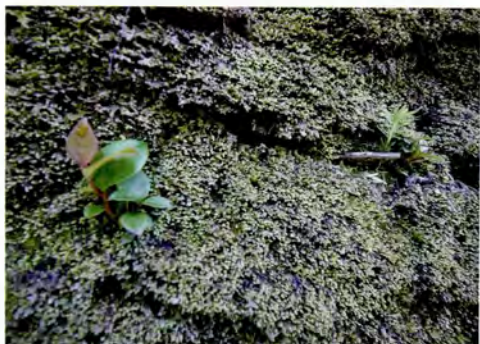
난 이번에는 심한 모험을 하기로 하였다. 산 친구 한 분과 세계 3대 트래킹중 하나인 이 섬에서도 북쪽 끝에서 서쪽 해안을 따라 약 일주일간 오르락 내리락 수없이 해야 하고 때로는 해변가 모래사장을 수 킬로미터 걸어야 하는 험난한 "미 해병대 training course" 같다는 trail에 몸을 던졌다.

일주일간의 식량과 기후의 변화와 세계에서 비가 많이 오는 3대 지역 중 하나라 텐트, 옷 등이 짐의 무게가 어깨를 억 누르는 시작이었다. 이어정을 위해서 지리산 종주도 비 오는 시기에 혼자 해보고 근육 만드는 훈련도 했는지 할만 했다. 다른 트래킹보다는 아름다운 꽃이나 바다의 파도 경관은 뛰어나지 않았다. 어두침침한 숲 속에서 주로 걷고 진흙탕 길을 수 없이 걸어야 하기 때문 겨울 눈 등산 때 발목에 차는 스패츠가 필수였다. 산에서 흘러나오는 개울물을 만나면 여지 없이 다리를 통과 하거나 계단위로 한 없이 올라가 다시 내려와야 하는 과정을 수 없이 반복해야 했다. 이따금씩 해변가를 걸어야 하는데 모래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있지만 걷는 속도가 느렸다. 찰랑이는 바닷물과 바위 사이에 홍합은 지천이었다. 점심을 바닷가에서 할 때면 홍합을 삶아서 끼니를 때우곤 했다.



트레일 중간 지점에 섬 원주민(인디언)이 운영하는 멋진 점심 장소가 있어 점심도 사 먹고 조그마한 배를 태워주고 바닷가로 나가서 낚시를 하는 즐거움이 기억에 생생하다. 대구 같은 생선을 두어마리 잡아서 그날 저녁 모래사장에서 횡감으로 즐긴 것이 가장 큰 낙이었던 거 같다. 짐 무게 때문 술이 없었던 것이 아쉬움이었다. 일주일간 이곳도 미리 트래킹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곳이기 때문 오가는 트래커들은 많지 않았다.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많았는데, 어느 지점에서 만난 한국 여자가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것을 보고 반가워서 한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직장생활 하다가 사표내고 세계 일주 트래킹에 나섰다라는 것이다. 여자 혼자서, 한국 여성의 새롭게 변한 용기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일 이야기지만 내 친구와 단신으로 돌이 우연히 남미 파타고니아 트래킹중 어느 길에서 마주쳐 다시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했다.

이 여정에서는 바다와 밀림 같은 숲이 자아내는 두 세계가 공존하는 곳을 만났다. 자연의 세계가 그려내는 다양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그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은 잠시 여행객으로 다녀오지만 어느 불란서 여자는 아예 바닷가 한쪽을 자리 잡고 숙박업을 하면서 정착해 버렸다. 세상에서 이곳만큼 자연의 아름다움 연중 변화 무쌍한 기후와 싸우면서 일생을 그 한곳에 맡긴 것이다.

행복 하단다. 돈을 벌려고 도시에서 바둥대고 사는 일반인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지 않는가?



자연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자연 '식물원 · 수목원' 을 만나다! II



글/사진 김 홍 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공평길라잡이 중요

가든인 구독자 여러분, 입추가 지나고 이제 9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월에 공포되고,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봄엔 고양 꽃 박물관과 각종 정원 심포지엄 등으로 정원 조성의 열풍이 불었던 것이 10월 서울정원박람회를 통해 다시 정원에 대한 관심과 직접 만들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8월호에서 한택 식물원에서 만났던 식물원 공간과 다양한 식물들의 모습을 소개해드린바있고, 이번 호에서는 늦여름에서 가을을 맞이하는 이 맘때 가보면 좋을 '가평아침고요수목원'과 '포천 평강식물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아침고요수목원은 면적이 10만평에 이르고, 꽃과 나무로 가득한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6년 미완성된 상태로 개원하여 어느덧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23개의 다채로운 정원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고요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종은 자생종 2,000여종과 외래종 3,000여종으로 초본, 목본, 수생식물 등 다양한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목원은 봄, 여름, 가을에 꽃과 녹음이 가득한 시기로 운영하지만,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겨울이 수목원의 휴면기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시도로 '하경정원' 지역을 겨울에는 리모델링하여 '축제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결국 아침고요수목원은 사

계절 내내 관람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연간 평균 80만명에 이르는 수많은 방문객들이 아침고요수목원으로 모여 든다고 합니다.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인상적인 정원을 꼽아 본다면, '섬으로 가는 길_한국주재정원', 대한민국 한반도 모양으로 정원의 틀을 조성하여 통일을 염원을 담은 정원으로 다양한 색깔을 내는 나무와 숙근초도 다양한 일년초가 어우러지는 정원으로서 '하경정원', 굽은 길을 따라 양쪽으로 이어진 화단에 꽃들로 가득한 '하늘길', 예배당으로 나아가는 길 양쪽에 하얀색의 꽃들로 이루어진 '달빛정원',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야생화를 볼 수 있는 '야생화정원', 주로 침엽수로 조성된 '미니어쳐 가든레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과 암석들로 조성한 '석정원'이 특징적인 정원이 되겠습니다.



섬으로 가는 길_한국주재정원



하경정원



하늘길



달빛정원



야생화정원



석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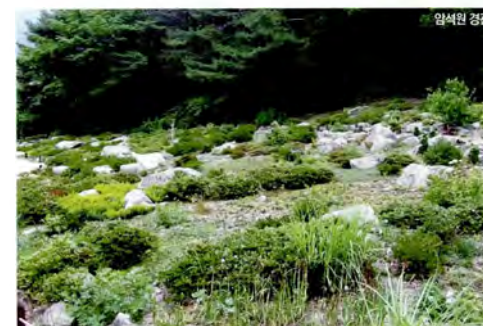
[그림 10] 이끼정원의 특색있는 정원들

2. 포천 평강수목원



[그림 10] 평강수목원 입구에 조성되어 있는 재활용정원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18만평의 대지에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조성한 수목원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평강수목원입니다. 평강수목원은 1999년 8월에 착공했지만 조성 기간이 길어져 2006년에 5월에 개원했다고 합니다. 평강식물원은 암석원 식물, 만병초, 단풍나무, 수련, 아이리스 등에 이르는 7,000여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석원, 들꽃동산, 고산습지원, 자생식물원, 만병초원, 잔디광장, 연못정원 등의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평강수목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암석원(Rock Garden)'은 면적이 약 1,800평으로 고산식물 전시장으로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암석원에는 선진 식물원들의 조성 기법을 도입하여 지하에 배수층 확보, 특수한 용토와 암석을 배치하여 고산지대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백두산과 한라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식물들과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외국 고산식물들이 약 1,000종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11] 암석원



암석원에 돌이나 바위가 다른 수목원의 암석원에 비해 유달리 많은 이유는 척박한 고산지대의 극한환경에서 적응한 식물들은 우리나라 여름철 더운 날씨와 장마철의 과습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식물원에서는 지하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물 빠짐과 공기의 서늘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상부에는 돌과 바위를 배치하여 식물이 잘 적응하여 활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평강식물원의 또 다른 자랑인 '만병초원(Rhododendron Garden)'을 소개합니다. 만병초는 건조해지거나 기온이 떨어지면 잎 끝이 뒤로 말려서 스스로를 지키는 특징이 있으며, 잎을 말려 약 초로도 활용하여 일반 가지의 병에 쓰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



[그림 12] 평강식물원 만병초원



[그림 13] 평강식물원 연못정원

'습지원(Bog Garden)'은 습생림과 습생초지 등의 생태복원 기법을 이용하여 한라산 및 중부지방의 다양한 자연습지생태를 재현하고자 했으며, 특히 습지 내 생태연못에는 수생식물들을 식재하여 수질 정화와 수서곤충과 조류의 서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림 13] 평강식물원의 습지원

평강식물원의 '연못정원(Pond Garden)'은 국내 최초로 수생식물을 위한 특수용기를 매설하고, 그 주위에 숙근초와 관목류를 식재하여 연못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0평의 면적에 50여 종의 수련이 식재되어 있고, 각 연못마다 수련류를 품종별로 식재하여 물 속에서 피는 수련과 연꽃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림 14] 평강식물원의 연못정원 중에서 수련정원

[그림 15] 평강식물원의 다양한 정원들



[그림 15] 평강식물원의 다양한 정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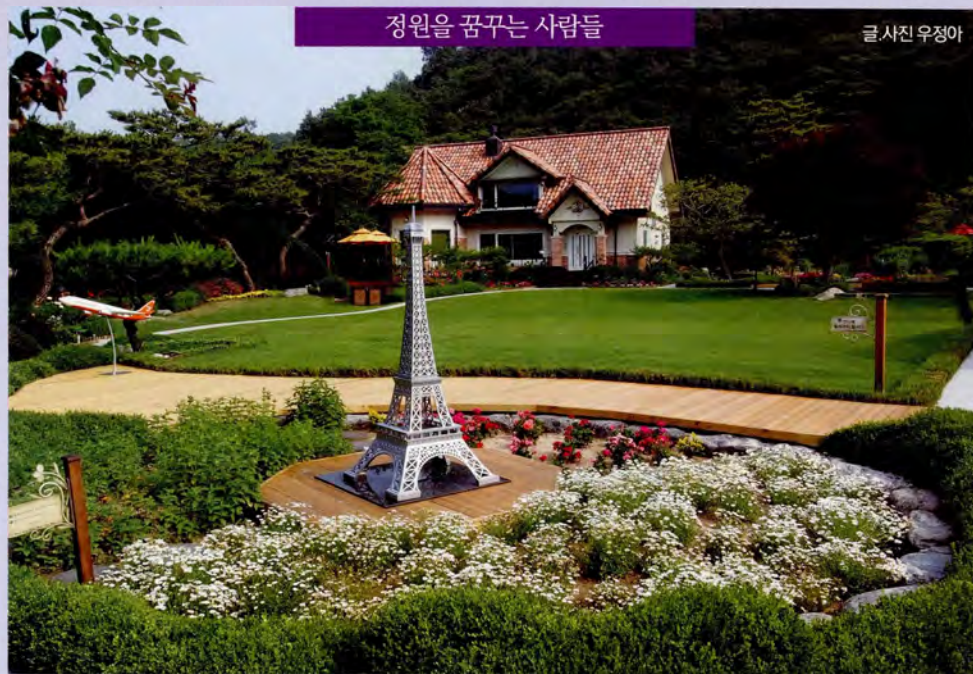
수목원·식물원 답사를 정리하며

산림청에서 수목원과 식물원, 즉 숲과 정원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해본 결과, 1년 동안 약110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22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는 자연의 숲과 도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정원은 환경 및 경관 개선과 함께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수목원과 식물원을 나무와 화초를 심어서 전시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문화와 (文化) 된 자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이 만들어 내는 자연적인 아름다움과는 달리 인간의 감각과 지적 행위의 과정이 포함 되는 문화적 행위가 발현하는 또 하나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정원법이라고 약칭되는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수목원·식물원과 같은 정원 조성과 산업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접근한다면, 우리는 정원을 일시적 유행처럼 여기는 하나의 상품으로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이브가 '에덴'이라는 정원에서 삶을 영위했다는 인문학적 소양에 기초해 본다면, 수목원 및 식물원 같은 정원 조성 및 운영의 수준과 인식이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에 집중해야 하고 삶속에서 정원 문화가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수목원과 식물원들은 다양한 식물종 확보, 식물전시 및 관리의 다양화, 식물 연구, 교육프로그램, 휴양 및 휴식 공간 제공 등은 물론 새로운 정원 문화의 보급소와 같은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산림청이나 국립수목원의 홈페이지에는 전국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원과 식물원 등에 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으니 수목원과 식물원에 건강하고 즐거운 정원을 즐기시면서 가을을 맞이하는 좋은 추억을 남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글 사진 우정아

동화 같은 정원 “더 그림(The Greem)”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564-7(도로명: 사나사길 175)

www.thegreem.com/

경기도 양평의 산 중턱에 위치한 정원은 들어서는 순간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그림 같은 모습으로 눈을 사로 잡는다. 선이 아름답게 자란 소나무들과, 단풍나무, 과실수, 장미, 주목등과 숙근초와 1년 초화류가 어우러져 색의 향연을 만들고 있다.

1996년 1월에 노후 생활을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서 꾸미기 시작한 정원은 처음엔 다랭이논이었던 것을 한 쪽으로 축대를 쌓고 1300대의 흙으로 메워주면서 꾸미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 정원에 지식이 없던 주인장은 철쭉 10만 그루, 주목, 소나무 위주로 식재하고, 잔디를 깔았으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초화류를 심기 시작했고, 특이한 소재를 구해서 심기도 하면서 정원에 대한 지식을 넓혀 나가게 되고, 7개의 필지로 나누어 쪼갰던 것을 한 정원으로 꾸미기 시작하면서 차츰 개성이 있는 정원으로 거듭나고, 12년 전부터는 방송국에서 촬영지로 방송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100여 회를 찍다가 보니 찾는 이도 많아지고, 개방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 3년 전부터 카페를 겸한 개인 식물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사 윤석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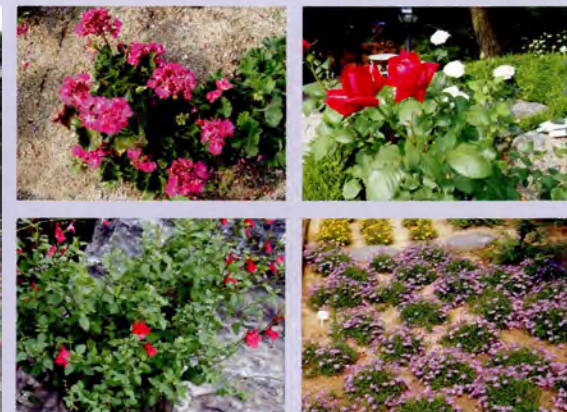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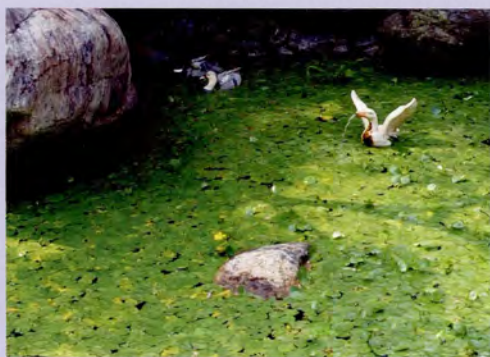
시행착오는 배움의 길이다. 이 정원도 기초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조성 하다 보니 배수력이 좋지 않아 식물이 고사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땅을 파고 보니 그 속엔 돌이 가득했다. 이 돌들은 다 파내고 마사토로 지반을 다지고 그 위에 산흙을 채워 넣으니 식물이 살기 좋은 토양으로 변했다 한다. 그 파낸 돌로 정원의 한 쪽 면을 축대로 쌓고, 정원석으로 활용했다.



특히 연못을 만드는 것이 제일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처음에 자갈을 깔고 눈에 보기 좋게 조성했지만, 자갈에 물때가 끼고, 수생식물이 고사하고, 비싸게 주고 들여 놓은 비단잉어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 안타까워 연구한 것이 계곡의 물을 물레방아로 끌어 들여 수로를 만들어 정원 전체를 순환시키고, 어리연, 수생식물을 적절히 식재하여 자연정화 되도록 하여 깨끗한 물을 빌려 쓰고 돌려 준다고 한다.



관리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잡초 제거와 식재를 손수 한다. 특히 잔디의 관리가 제일 까다로우며 보름에 한 번 깎아 주고, 1년에 1번, 5월 중에 잔디용 비료를 준다고 한다. 소나무는 2~3년에 한 번씩 전지, 전정을 해 주고, 뿌리가 지면과 가까이 퍼지기 때문에 강풍과 눈에 쓰러지지 않게 지지대를 해 주면 좋다고 한다. 퇴비는 봄에 주로 밑거름을 수관쪽 만큼 주위를 돌려 파서 주는데, 특히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블루베리, 주목 등은 추비를 더해 준다.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극한 경우가 아니면 방제는 하지 않지만, 회양목은 병이 많은 수종이라 저독성 농약으로 3번 5월, 7월, 9월에 방제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엔 친환경 방제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을 해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이 개인 식물원이 지금의 유명세를 타기까지는 드라마 협찬 장소로도 알려졌지만, 2012년 말에 양평에 외국인 (홍콩, 중국, 대만) 관광객 유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홍보와 파워 블로그들의 홍보, 다녀간 이들의 입 소문이다. 개인이 방대한 정원을 조성, 유지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 낸 이 곳은 식물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좋은 예인 것 같다.



잡초가 많은 봄, 여름엔 온 가족이 날을 잡아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잡초제거를 하면 그 보다 행복한 날이 없지만, 정원을 꾸민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 꾸며진 정원의 땅과 연못을 3번 갈아엎고 다시 꾸며진 정원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엔 공짜가 없다며 학비를 땅에다 바쳤다고 미소 짓는 주인공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이 정원에 대한 정열이 느껴지는 듯 하다.



영미가 읽어주는 정원 대백과 정원 계획과 디자인 편

훌륭한 정원들 중 몇몇은 디자인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풍부한 색, 질감, 모양 등을 자연스럽게 혼합하여 나타난 공간 예술이다. 장미 사이에 자리 잡은 폭포, 멋대로 뻗은 듯한 라벤더 덩굴은 대부분 정원사의 생각이 철저하게 반영된 것이다. 형식적이지 않고 약간 무질서한 정원이든, 우아하고 형식적인 정원이든, 성공적인 디자인은 공간 예술의 세심한 계획의 결과물이다.

식물과 정원의 각 요소들이 무계획적으로 배치된 정원과,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잘 통제되어 있는 정원은 큰 차이가 있다. 통제된 정원은 모든 요소가 함께 화합하도록 유도해 매력적인 조합을 만들 수 있다. 계획은 아름다운 정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아름다운 정원은 나만의 스타일과 센스, 균형과 비율을 잘 이루고 있으며 주변과도 어울린다. 또한 정원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며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정원을 계획하다

정원을 다시 디자인할 때, 주요 목표는 사용자의 요구와 취향을 만족시키는 개인 공간 형성에 있다. 집의 실내 인테리어는 다음의 큰 세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장소를 실용적으로 이용 가능한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취향에 맞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고, 좋아하는가이다. 정원과 실내디자인 모두 다양한 사이즈, 특성, 시기 등의 영향을 받는다.

집과는 다르게 정원은 한 주, 한 주 계속 변화한다. 변화와 놀라움을 주는 것이 정원의 정수이다. 지나치게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식물은 한 계절 안에서 장관을 이룰 수 있다. 정원이 만들어진 후에도 발전하고 강화하기 위해 계속적인 디자인 과정이 요구된다.

계획의 중요성

정원을 가꾸면서 내가 유도하지 않은 것들이 뜻밖의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 빈틈없는 디자인 계획은 필수적



(사진1) -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풍부한 전형적이지 않은 이 정원에서는 뜻밖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정원의 다양함을 주기 위해 둥근 원의 잔디를 만들어 시야를 넓혀주었으며 가정차리는 다양한 혼합 식재로 지저분함을 막아 넓게 보이도록 유도하였음. 바닥과 잔디의 지면층을 주어 지표면에서 넓은 정원의 시야를 확보한 디자인



(사진2) - 돌로 울타리의 라인을 잡고 클래식한 아치형의 트릴레스가 정원의 운치와 focal point를 주며 뒷 배경의 짙은 아이비로 스크린을 만들어 주며, 식재의 색상이 잘 조화된 정원의 모습.

이다. 적어도 미리 종이에 정원의 기본 뼈대를 그려보는 것은 실제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값비싼 실수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나중에 최소한의 대안만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테라스, 벽, 나무와 같은 장기적인 모습을 계획해야 하는 것들은 미리 위치를 잡아주어야 한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 보다 전체 정원을 계획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정원에 연속성을 만들어 주기 더욱 쉽다. 그래서 각 요소들이 단순히 흥미만 주는 것이 아닌 전체로서 우리가 보았을 때 더욱 효과가 있다.

정원 계획은 실현가능하면서 기능적이고 바람직한 디자인을 포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디자인과 더불어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단순히 재배, 파종, 잔디 깔기, 식물과 관련된 것이라면 처리하기 쉬운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것이나 벽, 테라스, 연못 등의 건설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용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영구적이며 실수를 되돌리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당신이 건설적인 기술이 없다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낫다. 정원이 다 만들어진 후에도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러한 도움이 필요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정원을 계획할 때 약간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사진3) - 좌 : 관리가 적은 지피형식물의 식재디자인과 중간 크기의 싸이츠 혼합구성. 잘 다듬어진 잔디와 깔끔한 경계선 아래의 식재방법. 키 작은 식재, 지피식물로 구성 - 우 : 시계절 피고 지는 관리가 많이 필요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범위의 식물로 구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일년 내내 전반적인 관리 필요.

만들어진 정원을 바꾸기

대부분의 경우에 정원 계획은 완전히 새롭게 가꾸는 것 이외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 정원을 다시 디자인 하고 싶은 이유도 다양하다.

이사 후에 정원의 일부 또는 전체 디자인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바꾸고 싶을 것이다. 정원의 특징이나 배치가 놀이 공간 제공, 과수나 채소 재배, 더 나은 프라이버시 등 새로운 사용 목적에 맞추어 질 수 있다. 만약 정원의 높은 수준의 관리를 요구한다면, 정원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 드물게 옷자락이나 방치된 정원은 원래 모습을 되찾게 해주어야 한다. 또는 몇 가지 요소들은 새롭게 재배치할 수도 있다.

현재의 정원 들여다보기

정글처럼 얽힌 나무들, 방치된 덩굴과 잡초를 마주하더라도 성급해서는 안된다. 모두 캐년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쉬워 보여도 주의 깊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원 속에도 재미있거나 유용한 식물 자원이 숨어있을 수 있다. 새로운 정원에서 잘 자란 한 두 개의 개체가 디자인의 틀이 되어서, 가꾸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을 완화 해준다.

정원을 다시 디자인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서서히 적용해나가야 한다. 정해진 계획을 무작정 도입하는 것보다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정원이

의 일년 달력을 만들고 기억해들만한 사항은 적어놓자. 예를 들면 바람을 막기 위한 생울타리 만들기, 겨울에 적합한 구석 부분을 열매로 밝아지게 해줄 덩굴 심기 등이 있다.

이러한 첫 시기에 화단, 화단, 펜스 위의 덩굴 등을 이용해 색과 흥미를 더해줄 수 있다. 죽거나 상처 입은 나뭇가지 정리, 잔디 깎기, 잡초 제거하기, 생울타리 다듬기와 같은 일상적인 관리 작업은 정원이 언제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새로운 정원 꾸미기

정원이 없었던 자리에 새로이 정원을 만드는 것은 겁이 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신나는 도전임에는 틀림없다. 이미 정원이 있는 상태보다 제한이 적고, 생각해 놓은 그림대로 만들기가 쉽다. 하지만 배치와 관련되게 디자인해야 하고, 토양과 기후와 같은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개략적인 계획 세우기

디자인에 앞서 정원의 주요 요소를 대략적으로 스케치 하는 것이 좋다. 집과 경계 등 여러 가지 고정된 물체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리고 화단, 잔디밭, 연못, 테라스 등 필요한 것들을 비슷한 위치에 그린다. 공간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퇴비더미나 햇간 등도 표시한다. 이들의 가장 좋은 위치는 집에서 멀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이다.



(사진4) 전형적인 열린 정원 - 중앙에 낮은 분수의 원을 만들어 시원하고 열린 공간을 열어주며, 주변의 식재는 그릇형 색상으로 키가 높은 식물들은 가운데로 심으며 가장자리에는 낮은 식재로 마감하며 패턴 만 정적인 구성을 하며 대칭의 식재 방법으로 정원을 더 넓게 보이도록 유도하였다. 주변의 변지는 햇빛의 움직임에 따라 어느 방향에서든 정원을 감상하도록 배려하며, 정원의 구성요소로 출기기 위한 포인트이다. 멀리 보이는 뒷면은 다음 정원으로 이어지는 이치형의 문과 벽을 만들어 공간의 방을 만들었으며, 둘로 쌓은 벽은 겨울 기간 부드러운 식재의 보호 역할도 한다.



(사진5) 도시 테라스형 정원 - 관리가 쉬운 식재와 선정과 넓은 잎의 식물 사용으로 생동감을 느끼도록 한다.



(사진6) 정원의 구성 요소 계획 - 정원에 만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때 집과 그 밖의 고정된 것들의 위치, 관계 등을 고려한다.

정원의 종류

저마다의 사람들에게 꼭 맞는 정원 스타일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채소를 키우기 위한 정원이 우선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 활동이 우선, 또는 휴식을 위한 고립된 장소가 중요할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정원 종류가 있지만 완전히 색다른 정원을 위해 혼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가족 정원

-상당히 전형적인 디자인으로, 가족 정원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꽃 화단, 과수와 채소, 테라스를 위한 공간도 될 수 있다.

전원주택 정원

-여러가지 색다르고 재미있는 식물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정원이다. 또한 약간의 야생성, 자연 보존, 인공 폭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정원을 유지하려면 고도의 원예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거실 정원

-테라스, 낮은 벽, 계단, 연못 등의 구조물에 있는 거실 정원에는 많은 화분이 있으나 다른 식물과 잔디밭이 없다. 이 정원은 보통 최소한의 관리만 하면 된다. 특히 작은 도시 정원에 알맞은 유형이다.

열린 정원

-집과 떨어진 경사면 땅에 가능한 정원이다. 대체로 관리가 적게 필요하고 주변에 좋은 경치를 가졌으며, 활동량이 적은 취미활동에 적합하다. 이 정원에는 과일과 채소를 기르기 위한 공간이 있다.

달린 정원

-막히고 고립된 안식처와 같은 정원에서는 사생활이 우선시된다. 또한 정원이 예쁘지 않아도 눈감아줄 수 있다. 이 예뻐서인 디자인은 보통 정자, 키 큰 나무, 덩굴 식물을 포함한다.



제 2의 직장 “노트레스 오픈정원”

Nôtres Open Garden

경기도 양평 강하면 동오리
글. 정원사/ 한 동진

느끼는 것 & 생각하는 것의 선택

직장생활의 마감을 예측하고 그 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가지 고민을 10여년전부터 하여왔다. 수천 억원의 프로젝트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구사항을 정확히 수행하며 맞추어야 하는 중공업에서 40여년을 근무하던 공학도로서의 나의 마음과 머리는 너무나 메말라 있었다.

'느끼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순수 해져야겠다는 처음의 할 일은 자연 가까이에서 생활하기로 아내도 나와 생각이 같았다. 주택 건축사업을 하고 있던 아내의 여동생 내외도 같은 생각을 해오던 차라 순조로이 진행이 되었다. 상수도 보

호구역 이므로 산업적 개발에 규제가 많은 양평을 자연의 환경지역으로 양쪽 자매 가족내외가 결정하였다. 여러 차례 설계를 고쳐 우리에게 맞는 작은집을 2013년 봄에 건축을 착수했다. 건축은 동서가 맞아 진행하고 난 조경 공부를 시작하였다. 조경가든대학을 거쳐 시민 정원사와 조경 기능사 자격을 획득한 후 여름부터 조경작업을 시작하였다. 경험도 없는 상태였지만 배운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아내의 계속적인 불만이었다. 나무를 이리저리 옮기고 꽃을 수 차례 다시 심었지만 해소 되지는커녕 불만이 증가되어 폭발 직전까지 도달되었다.

많이 보고, 익히는 정원의 layout

결국 모든 조경을 원점에서 다시 하기로 하였고 2015년 봄학기부터 아내와 처제도 우리씨의 조경대학에(경기도 모가면) 등록하여 전문적인 공부를 시작하였다. 전문가의 추천으로 우리들의 정원 규모가 비슷한 정원을 우리 모두가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4명의 마음이 함께 새로운 정원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공간대를 가졌다. 이때 우연히 고마운 전문가를 만나게 되어 정원의 기본 layout을 조언 받았다. 10년 이상 된 벚나무와 식물들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물의 상태가 염려되고 높은 온도의 변화로 빠른 시간에 정원작업도 마쳐야 식물이 죽지않는 시간적 압박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작업 시간을 줄이고 정원의 형태를 빨리 갖고 싶은 욕망 등등. 정원의 layout은 크기에 상관 없이 전문가와 상의 한다면 더 넓은 정원의 시야와 안목을 배울 수 있다. 나무와 꽃을 재배치 하였으며, 아마도 지난 2015년의 봄, 4월은 내가 태어나서 가장 일을 많이 한 달로 기억이 된다.



정원은 마음의 융합장소,

노트레스(우리들의) 오픈정원을 명명하다

이제 우리들 4인은 마음을 합하고 두 집의 정원도 통합하여 의논하며 정원일을 진행하였다. 지형의 구조와 창의적 아이디어는 서로 존중하며 처제정원과도 하나로 융합되는 정원을 꾸며나갔다. 두 집의 모든 일을 오픈하여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여 두 가족 4인의 공동정원과 해결점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며 통합 정원 400여평이 커다란 고급 주택 정원으로 변화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두 집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자연스런 공간의 이용과 두 개의 개성이 있는 하나의 정원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을 연출하였다. 넓고 정리된 정원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정원'에 대한 자긍심과 행복이 모두의 마음이었다. 대 저택의 느낌도 얻었다. 그리고 정원의 이름을 '우리들의 오픈정원(Nôtres Open Garden)'으로 명명하는 우리들의 정원 이름이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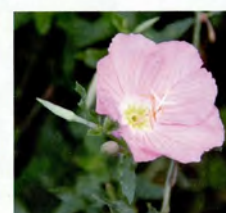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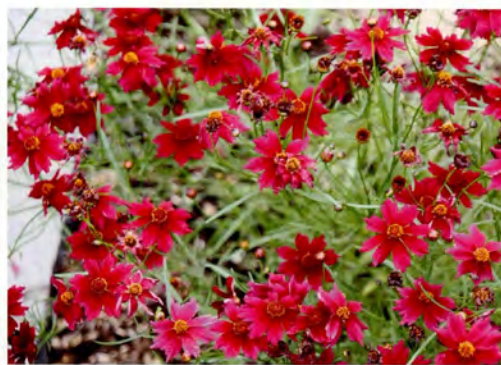
노트레스 오픈정원의 식물은 단풍나무, 모과나무, 나무수국, 노각나무, 고광나무, 배롱나무, 백목련, 자목련, 낙산홍, 앵두나무, 라일락, 공작단풍, 구상나무, 옥매, 공조팝, 눈향나무, 백철죽, 석암, 화살나무, 포도나무 등과 다년생식물들로 이루어져 년중 꽃이 피고 지는 정원으로 이어가며 각 공간의 특성을 앞으로도 계속 진화시키려고 한다.

정원은 늘 새로운 기쁨을 전하는 곳

오픈된 정원입구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커다란 수도물 공금치가 미적 리듬을 깨고 있어 화살 나무로 둥글게 감싸주니 정원의

일부로 흡수되고 가을이면 빨간 단풍으로 정원의 앞면에서 바라보는 장소가 될 것이다. 넓은 정원 공간은 아니지만 정원의 요소들을 발견하여 정원속 무대, 정원속 산책길, 잔디 & 돌을 이용한 쉼터자리, 우물통의 아리가든 변신, 그라스의 펜스정원, 몇가지 과수정원들의 연출을 시도도 포도원의 정원등등은 두 집에 비슷한 식물로 배치 되었지만 각각의 창의력으로 정말 새로움을时时때때로 보며 감탄을 하는 '우리들의 오픈정원'(노트레스 오픈정원)을 만들게 되었다. 정원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에서 자꾸 욕심도 생기며 서로 창의력도 생겨, 집안에 있는 소품을 정원에 옮기며, 하나하나 완성될 때 인간의 창의력은 즐기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있다





Gardenin
Design
tip

가든인 편집실 제공

▶ 정원입구에서 마주 보이는 곳은 대부분 수도가를 넓게 하여 정원의 경관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미 설치된 곳에 화살나무를 C자형으로 식재하여 정원의 일부로 바꾸어 가을이 되면 멋진 단풍의 포인트를 전달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 산책로 속의 우물통 뚜껑도 아주 자연스럽게 흙을 돌우어 흙이 얇게 깔리는 세덤정원의 모습 등그란 세덤정원은 정원 한가운데 자리 잡은 지하수 철관 원뚜껑을 훌륭하게 알판정원을 만든 곳. 세덤 5종을 선정하여 사계절 푸르름을 잔잔히 전하는 창조의 공간이다. 정원에는 초록의 나무가 많이 심겨져야 좋다 하지만, 기존의 식물을 건강하고 풍성히 키우는 정성이 있다면 싱싱한 접시꽃 한 송이로도 정원의 포인트를 사로잡는 공간으로 변화 할 수 있다.



▶ 정원속 무대 : 자연의 잔디로도 많은 디자인이 연출된다. 후미진 삼각형의 공간을 다른 테마의 정원을 만들고 싶어 가장자리를 둥근 원을 그리어 잔디에 한층 더 높여 새로운 무대공간을 연출하여 입구 주변에 장식용 그라스로 포인트를 주어 또 다른 seating area 를 연출. 벚나무의 그늘이 심을 이루는 장소로도 만들어준다.



▶ 30cm 폭의 혼합식재: 약 9.5미터 길이의 집앞과 연결된 데크 밑에 폭 30 cm의 화단을 만들어 높지 않고 신선한 느낌이 가도록 만든 화단. 정원은 거실내부나 뜰에 앉아 바라보는 정원사의 공간이다. 혼합식재의 약 6회 반복을 이용하여 아키밀라, 프리즐 나나, 후룩스 2종, 호스타, 옥잠화 그리고 포인트로 이른봄 디기탈리스와 여름 에키네시아의 꽃은 반복적으로 식재하였으나 색상이 다른 꽃이 피므로 작은 앞뜰 정원을 늘 가까이 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른 아침이면 연꽃 같은 아키밀라의 연잎 모양의 이슬방울은 키우는 자들의 누리는 특권이다.



◀ Path 길 : 잔디가 초록의 배경을 잡아준다. 그리고 디딤돌은 잔디의 표면보다 약간 1-2mm 낮아도 매우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고 어두운 시간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 모든 디딤돌은 항상 잔디나 지면으로부터 거의 동일한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면적이 매우 넓어 보이는 착시 현상도 느낄 수 있다.



▶ 석축을 낮게 쌓은 입구쪽에는 돌 사이사이 누운 향나무와 꽃잔디 & 왕아죽이를 심어 자연스럽게 지면을 덮어 사계절 푸르름을 전달하여 좋은 식재이다.



◀ 집안에 패품 인형을 땅속에 묻어 고정하고 바위틈의 초코렛 휴케라와 모닝라이트 장식용 그라스의 조화는 손녀딸을 생각나게 하는 가족을 생각하는 공간.



▶ 정원입구의 소나무는 아직 어리므로 3~4개의 낮은 소나무를 그룹을 지어 뒤편고, 꺾어심는 연출을 하여 몇 년이 지나면 소나무의 포기가 피어난듯한 연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 과감하게 장식용 그라스로 바깥의 담을 연출한 정원이다. 한쪽 면의 담은 편백나무를 사용하였으나 컴컴한 것을 고려하여 겨울에는 적은 상록의 잎을 고려하여 그라스의 질감으로 포근한 정원의 느낌을 얻도록 하는 시도를 하였다.



▶ 잔디와 정원의 경계선을 낮은 회양목으로 연결하여 산책하는 정원의 공간을 연출하였다. 정원안의 산책로를 마련하여 다른 느낌의 안정된 산책로를 만들어 주었다



▶ 반원의 돌이 잔디에 놓이며 뒷면으로 그라스의 자태가 그림을 그린듯 하고 잔디와 돌로 만든 seating area는 아주 자연스런 멋을 연출한 공간



▶ 집안에 모아둔 오케스트라가족도 정원의 부분으로 나와 돌위에서 연주하며 정원의 향연을 즐기고 있다.



▶ 정원에는 화단이 있지만 아름다운 포트를 이용하여 장식용으로 놓으면 보다 화려한 정원의 공간 연출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정원으로의 여행 7



중세의 정원

비밀의 정원-
클로이스터 정원, 성관정원



글 사진 가든디자인 서수현
현 가든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영국 에섹스 대학교 가든디자인 개발 및 조경 석사
천안연암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유럽을 여행을 하다 보면 화려함과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한 정원을 많이 보게 된다.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과 같이 왕의 힘을 나타내기 위한 정원도 있고 모네의 정원처럼 자신의 취미생활과 관심사에 의해 만들어진 화려한 꽃을 즐길 수 있는 정원 등이 거기에 속한다. 유럽은 늘 정원에서 만큼은 이렇게 풍족했을까? 화려한 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절 학자들은 자신들의 시대와 그 이전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 중세시대의 유럽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다.

어둠의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고 이때는 봉건세력과 교회가 대립하는 시기이며 여러 왕국들의 분열로 인한 전쟁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나타난 전쟁으로 인해 아름다움이 묻혀버린 시기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발전한 정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원정원으로 알려진 클로이스터 정원과 성안에 만들어진 성관정원이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가야만 한다. 그 중에서도 영주가 살고 있는 Castle은 중요한 요새이기도 하지만 침략을 방어할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만큼은 휴식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남아 있는 영국의 성관정원들은 그 소유자들의 힐링공간으로 정원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져 왔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장소임을 느끼게 해주는 성벽이나 건축물들은 옛 모습을 지켜가고 있다. 그 안에 만들어진 정원들을 한번 살펴보자.

클로이스터 정원은 중세 수도원 안에 만들어졌던 정원의 스타일을 말한다. 유럽의 수도원들을 보면 높은 절벽 위에 위치하거나 외딴곳에 위치한 곳이 많다. 건물 외부에 화려하게 만드는 정원이 아닌 회랑식 중정 안에 만들어 놓고 신성하게 여겼



(사진: Broughton Castle - 옥스퍼드세아에 위치한 고성 정원 이곳은 11~13세기에 지어졌으며 1550년대 정원이 리모델링 되어 현재까지 옛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21대 Saye & Sele 경 가족의 집이다. 공휴일을 위주로 정원 오픈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벽을 따라 병풍처럼 피어있는 장미 R.'Goldfinch', R.'May Queen', R.'Felicia'와 웨스터리(등나무)를 보면 그 세월을 짐작케 해준다. Penstemon Garnet', Allium christophii, Sisyrinchium striatum 등이 심겨 있다.)

던 정원이다. 따라서 회랑 기둥 사이사이에 벽이 만들어져 있고 정원 것이 특징. 이런 모습은 마치 삭막한 건물 안에서 보았을 때 정원을 사분원(십자 형태로 길을 이용하여 공간을 사분할 한 것)하여 길 낙원과도 같은 존재로 느껴졌을 지 모른다. 만 만들어 놓았다. 가운데 공간에 우물이나 상징성 있는 나무를 심는



(사진: Broughton Castle - The Ladies Garden 성관정원에서 배를 볼 수 있는 정원은 참미원이다. 사계절 내내 형태를 볼 수 있는 화창목 화단 안쪽에는 속근 샬비어, 장미, 라벤더 등이 심기고 주변으로 화려하게 피는 다양한 종류의 장미들을 볼 수 있다. R.'Paul's Himalaya Musk'가 성벽에 가득피어있고 R.'Gruss an Aachen' 그리고 R.'Lavender Lassie', Rosa rubrifolia, Campanula persicifolia, Geranium 'Nimbus' 등이 심겨있다.)



(사진: Broughton Castle - 성 주변으로 강이 흐른다. 방어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길이다. 지금은 정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소재로 바뀌었다. 정원에서 어디로 나가든지 강줄기와 만날 수 있다. 마치 벽에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 넣은 듯 보이는 경치가 너무나도 멋지다.)

수도원이라는 곳이 수사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곳으로 활한 곳이었다. 따라서 수도원 안에서는 몸이 아플 때 사용할 약초를
로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급자족 하며 생 키우는 약초원과 먹거리를 담당할 수 있는 채소원 즉 키친가든이 발



(사진: Chateau de la Bourdaisiere - 성 뒤편에 위치한 키친가든, 서로 다른 종들을 시험해 보는 듯 토마토도 모양 색이 천차만별이다. 수도원에서 기르던 채소들도 이런 연구를 거치지 않았을까?)



(사진: Chateau de la Bourdaisiere □ 직접 재배한 토마토들을 진열해 놓은 곳. 수확한 채소들을 파를
로 만들어서 팔거나 저장해 둘 수 있도록 용기에 넣어 두었다.)



(사진: Chateau de la Bourdaisiere - 유기농으로 키우는 토마토 옆에는 벌레들이 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메리골드를 심어놓았다. 보기에도 좋은 키친가든의 모습입니다.)

달하였다. 이전까지 식물에 대한 기록이나 연구들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에 비해 수도원에서는 식물을 키우면서 연구와 기록을 남
겼다고 하니 원예적 측면에서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유럽에서 즐겨 마시던 포도주 역시 수도원에서 주도 했었다.
직접 포도를 수확하기도 하고 탄산이 든 포도주나 샴페인을 만들어
낸 것 역시 포도주 담당이었던 프랑스의 페리뇽 수사에 의해 포도주
병마개로 코르크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라고 한다.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도 사람들은 정원을 늘 곁에 두고 살았다. 넓
게 트인 공간에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건물 사이사이 자투리 공간
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마치 숨겨진 비밀의 정원과도 같다.



Rosa Felicia

R.'May Queen

R.'May Queen

Indoecae Sisyrrinchium striatum



Geranium Nimbus



c. persicifolia white



Gruss an Aachen



grussama



R.'Goldfinch'



campanula persicifolia pur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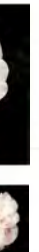
R. pauls himalayan



R. lavenda lassie



rose



grussama

에코홀 시스템 (특허 제10-1429481호)

Echo 에코블럭

수직의 웅벽!
이제 정원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답답했던 웅벽,
이제는 자유롭게 식재가 가능한 아름다운 웅벽으로 탈바꿈합니다.



Echo 방틀 용도
저수호안의 방틀, 하천호안,
식생호안, 사면보호,
세굴방지, 화분용

Echo 에코웬스

아름다운 노출 콘크리트에 식물을 직접 심을 수 있는 화분입니다.
엔틱과 모던함을 동시에 표현가능합니다.



Echo 웬스 용도
광장, 계단, 주차장,
도로중앙분리대, 경계용으로
입체적 디자인이 가능한
신개념 실용화분

측면에는 관목을 심어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윗면 상단에는
관목, 야생화 또는 일년초를 복합식재하면 좋습니다

구 입 문 의

 **벽화수주식회사**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T.031-634-7990 F.031-634-7991



바닷가에서 주워온 굴 껍질을 활용한 조형물 만들기



우 정 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회원회장



스티로폼에 굴 껍질을 원하는 모양으로 글루건을 이용하여 붙인다

굴 껍질을 붙이고 난 빈 공간에 맞게 매트형 공파개를 붙인다.

철사는 5cm정도 잘라서 반으로 구부려 U자형으로 만들어 놓는다.

공파개란 사이 사이에 철사를 꽂아 고정시켜 준다.



고정 후에는 굴 껍질 사이에 들어간 흙을 털어 주고 물을 흠뻑 준다.

관리법

· 매트형으로 된 공파개란은 흙과 뒤에 부직포가 영겨 있어서 철사로 고정시켜도 생육이 가능하다. 단, 매트에 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관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료는 액비로 계절에 따라 희수를 달리하여 분무기를 이용해 관수시 함께 넣어 분무한다.
굴 껍질, 조개 껍질을 가드닝에 사용할 때는 필히 소금기를 없애주어야 식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없애는 방법으로는 삶아 주거나 일주일 정도 물을 갈아 주면서 소금기를 빼 주면 된다.



Material





“작은 화분 하나라도 식물을 가꾸라.”

- 영국 BBC 방송 다큐멘터리 <행복 10계명> 중 하나. 식물과의 교감으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
“삶 속에 풀 한 포기 행복을 가꾸세요.”
- 지은이 김혜숙

40년 간 원예학과 교수로 일한 경험을 살려 생활 속 원예를 실천할 수 있게 한 안내서

이 책은 원예의 기초 이론과 지식을 자세하게 다루고, 각 식물의 특징을 나열하여 초보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좁은 도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 테라rium·디자이너·압착정원·토끼이더 등 실내 정원 꾸미는 법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사립들이 즐겨 찾는 관엽식물과 초화류와 꽃나뭇을 다룬 식물도감을 수록함으로써 식물에 대한 관심을 익히게 함은 물론 눈과 마음이 즐거워지도록 배려했다.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원예학 수업을 진행해 온 저자는 원예에는 이론과 실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이론과 더불어 실습의 차원에서 관련 작품을 수록하여 실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지은이 |

지은이 소개 - 김혜숙

서울시립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한 뒤, 2과대학에 대학원원에 실내용학위를 전공했다. 서울시립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단국대학교·성균관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한국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다. 실내용 원예 전문기관서·조선훈보·중앙일보 등의 일간지, 여성동아·천연생활 등의 월간지에도 실내용학위를 비롯한 다양한 원예 칼럼을 기고했으며, KBS·MBC·EBS TV 및 라디오의 각종 원예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대한민국농부박람회와 고당시 세계농부박람회 실내용조경 전시회에 출품했고, 국가고시(화훼장식) 출제위원 및 감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eoul International Flower Arrangement Society의 Association(SIAWA)에서 instructor로(Oriental Flower Arrangement)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실내용예』, 『생활원예(여자)』 등이 있다.

목 차
머리말 004

분갈이하기 051

수생식물

공중길이 정원

[illegible]

0.00 0.000

가자니아 Gazania
[ˈgɑːzænɪə] *(명사)*

가자니아는 선인장과의 다년생 식물로, 주로 건조한 지역에서 자란다. 꽃이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피고, 잎은 두꺼운 가죽질이다. 가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유래하며, 현재는 전 세계에 걸쳐 재배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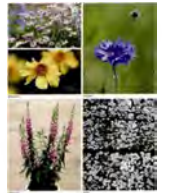
[illegible][illegible]

2007年12月15日 星期六

[illegible]

이제 $\mathbb{R}^n$ 에서 선형 변환을 정의하기 위하여, $\mathbb{R}^n$ 의 임의의 벡터 x 에 대하여, $\mathbb{R}^n$ 의 벡터 Ax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의 성분 a_{ij} 은 $\mathbb{R}$ 의 원소이고, $i, j = 1, 2, \dots, n$ 이다. A 의 성분 a_{ij} 은 $\mathbb{R}$ 의 원소이고, $i, j = 1, 2, \dots, n$ 이다. A 의 성분 a_{ij} 은 $\mathbb{R}$ 의 원소이고, $i, j = 1, 2, \dots, n$ 이다.

간염 B 바이러스는 간을 공격하여 간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간염 B 바이러스는 간을 공격하여 간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illegible][illegible]

Garden in September - 81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삽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도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192,000원)

Gardenin

발행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이순영 前 합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이명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전문위원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생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평성 농학박사 /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중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주)한국원예자재

September 9월 원예/정원관리 추천상품



대규모 울타리 전정에 탁월한 엔진식 전정기
헷트리머 [Hedge Trimmer]



벌초, 예초, 잔디깎기 등
견착식 예초기
[Brush Cutter Engine]



가을철 낙엽청소, 전정후 잔여물청소 등
블로워 [Blower]



다양하게 활용하는
미니창고(DIY)
[Mini Warehouse]

2.7평형(2.4M x 3.75M)



8기 크기로 정식하는 편리한 구근전용 재배용기
구근재배 용기!!
[Bulb Basket]

원형 : 30cm(지름)
사각형 : 23cm x 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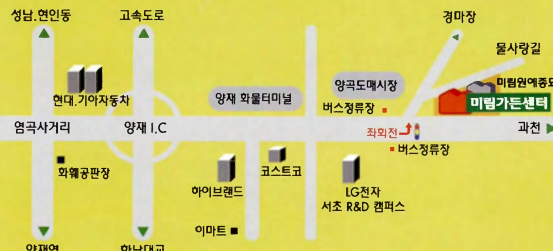
잔디용 스파이크 뱃신
[Lawn Spike Shoes]

잔디부리의 통기성을 좋게
하여 생육을 돕는 잔디전용
스파이크

미림가든센터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주암동)
Tel. (02)585-5346, 503-7080
Fax. (02)3473-8989

미림가든센터
shop 조이가든
검색창에 '조이가든' 검색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해외 품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박공영박사와 우리꽃연구소 (UIR)의 이광범, 박영미 연구원들,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은 굵은 땀을 흘리는 무더위에도 UIR의 독립품종을 연구하며 자부심과 긍지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품종학회에 울리며 규모는 작아도 조직배양의 성공으로 전세계로 로얄티를 국내로 받고있는 품종이다.



1. 실수후 5cm로 성장한 모종



2. 모종을 작은 화분에 옮겨심기



3. 개화 직전의 모습



4. 개화 시작하여 화단에 식재 가능



5. 6치 포트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